

民間傳說을 통해 본 明末淸初의 四川社會와 張獻忠*

-傳說의 歷史學的 接近-

李俊甲 (仁荷大)

- | | |
|------------------------|----------------|
| I. 머리말 | IV. 傳說속의 張獻忠 像 |
| II. 傳說의 主題와 流布地域 | V. 맺음말 |
| III. 傳說에 投影된 明末淸初 四川社會 | |

I. 머리말

근래 분과학문 사이에 둘러쳐진 견고한 담장을 허물고 학문간 소통과 교류를 적극 행하여 융합 학문을 창출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문학, 역사, 철학을 핵심 요소로 삼는 인문학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이는 文史哲을 함께 연마했던 동아시아의 학문적 전통을 계승한 것이다. 본고는 이런 흐름을 의식하면서 역사와 문학의 융합을 실험하려 한다. 그 실험은 문학 자료를 역사학의 시각에서 읽어냄으로써 시작한다. 그리고 기왕의 역사 자료들이 제공하기 어려웠던 생동감과 다양성을 내포한 사회상을 복원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겠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문학연구 자료인 傳說을 역사학적 시각에서 읽고 해석하여 역사 문헌자료의 부족함을 보완해보려 한다.

* 본고는 2008년도 연암해외연구교수 연구비를 지원받아 작성하였다.

본고에서 분석하려는 張獻忠 傳說是 인물전설 유형에 속한다. 이 전설은 사회 환경과 부딪히며 살아간 실제 인물의 이야기로서 완전한 공상은 아니다. 이야기를 주고받고 보태고 다루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사실적 요소가 포함되었다.¹⁾ 張獻忠 傳說을 역사학 연구의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는 여기서 찾아진다.

물론 중국 문학 연구 자료를 역사학적 시각에서 분석한 사례가 없지는 않다. 중국의 대표 사례를 살펴보면 陶淵明의 문학작품 『桃花源記』를 역사학적 관점에서 위진남북조시대의 사회상과 연결하여 파악한 陳寅恪과 唐長孺의 연구를 들 수 있다.²⁾ 국내에서는 중국사학자들이 『紅樓夢』의 사회사적 분석,³⁾ 『儒林外事』에 대한 사회사적 접근,⁴⁾ 『金瓶

1) 전설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에 대해 문학에서는 대체로 전설과 신화, 전설과 민담이 어떻게 다른가를 언급함으로써 우회적으로 대답하는 방식을 취한다. 전설과 신화에 관해서는 가령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천지창조, 별의 탄생, 죽음의 기원, 영웅의 위업 같은 성스러운 ‘진짜’이야기는 신화로 코요테 따위와 관련한 괴물의 모험담이나 동물의 해부학적 특성을 내용하는 세속의 ‘가짜’이야기는 전설이나 동화로 구분한다고 한다(미르치아 엘리아데, 『신화와 신화학』, 세르기우스 콜로빈·미르치아 엘리아데·조지프 캠벨(이기숙, 김이섭 옮김), 『세계 신화이야기』, 까치 출판사, 2001, p.17). 민담과 전설에 대해서는 각각 ‘시적인 것’과 ‘역사적인 것’ 혹은 ‘주인공에게 일어나는 일만 평면적으로 다루는 것’과 ‘주인공이 주위 환경과 부딪히는 관계를 복합적으로 나타내는 것’, ‘한 사람의 이야기꾼이 일정한 순서에 따라 계속 이야기하는 것’과 ‘여러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말을 주고받고 보태고 다루면서 이야기 하는 것’, ‘자아의 우위에 입각한 자아와 세계의 대결’과 ‘세계의 우위에 입각한 자아와 세계의 대결’이라고 보는 견해 등이 다양하게 존재한다(조동일,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 -영해지방 현지조사 자료의 구비문학적 분석』,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79, pp.4-7). 전설에 관한 다양한 정의 속에 내포된 공통점은 전설 속에 어떤 형태로든 사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2) 陳寅恪, 『桃花源記旁證』(『清華學報』 11-1, 1936; 『陳寅恪先生文集』, 里仁書局, 1980에 再收錄); 唐長孺, 『讀“桃花源記旁證”質疑』(『魏晉南北朝史論叢 續編』, 北京, 1959). 두 논문의 논지에 대한 흥미진진한 소개는 박한제, 『박한제교수의 중국역사 기행 2 -강남의 낭만과 기행 동진·남조 시대』(사계절, 2003), pp.96-127 참조. 중국에서도 문학과 역사학의 만남 소개는 대부분 『紅樓夢』, 『金瓶梅』, 『儒林外事』 등 明清時代 小說이다.

3) 曹秉漢, 『紅樓夢의 社會史的 分析 -官紳·豪商 批判과 民本意識』(『釜山史學』 11, 1986).

4) 曹秉漢, 『清中期 八股科舉制下的 社會心理와 在野의 士人文化的 形成 -『儒林

梅』의 사회경제사적 연구⁵⁾를 시도하여 문헌자료의 활용 범위를 확대 하면서 명청시대의 시대상을 생생하게 복원해 낸 바 있다.

그러나 국내외의 대부분 연구성과는 문학작품 가운데 소설을 역사학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張獻忠 傳説을 역사학적 시각에서 분석하려는 필자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이 소설들은 當代 문필가들의 붓끝을 거쳐 창작되고 다듬어지면서 문자로 정착되었다. 따라서 그 속에 시대상이 생생하게 반영되고 있지만 지식인인 작가 개인의 창작물로 보아야 한다. 반면 張獻忠 傳説은 350년 가까운 오랜 시간에 걸쳐 사천지역 수많은 民草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최근에야 문자로 정착되었다. 張獻忠은 청조의 중국 정복에 무력으로 투쟁한 농민군 수령이었으므로 청조 치하에서 禁忌시 되던 인물이었다. 그럼에도 民草들은 지배자들의 이런 시선에는 아랑곳 않고 張獻忠을 주인공으로 삼아 수많은 전설을 만들어 전승시켰다. 張獻忠 傳説 속에는 民草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느낌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이다.

淸朝와 支配層(紳士層)의 문헌자료가 만든 장헌충의 이미지는 명말 청초의 사천사회를 폐허나 다름없이 처참하게 파괴하고 주민을 닥치는 대로 죽인 ‘屠殺者’이다.⁶⁾ 이런 이미지가 완전히 날조된 것은 아니며

外事』의 社會思想을 中心으로」(『釜山史學』 13, 1987); 박민수, 「『儒林外事』를 통해 본 淸初 江南 지역의 士人과 商人」(『東亞文化』 47, 2009).

5) 吳金成, 「『金瓶梅』를 통해 본 16C의 中國社會」(『明清史研究』 27, 2007).

6) 청조에서 편찬한 『明史』(中華書局, 1997年版) 卷309, 列傳 197, 「流賊」, p.7976 은 장헌충에 대한 청조의 공식적인 시각을 기록에 놓았다. 이에 따르면 張憲忠은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여 하루라도 살인하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즐거워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수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과거시행을 미끼로 무수한 사천의 士人들을 죽였고 성도 주민들을 생매장했으며 명대 衛에 소속된 군사 98만을 죽였고 부하장수들을 보내 사천 각지의 주민 살해하였으며 휘하의 관료들을 죽였고 산 채로 가축을 벗기는 방법을 고안했으며 휘하장졸들이 살인한 수에 따라 공적을 포상하였다고 한다. 그가 사천에서 죽인 男女의 총 수는 六萬萬이라고 『明史』는 기록했다. 『明史』「流賊」에 실린 장헌충의 이미지는 가히 ‘屠殺者’라 하기에 전혀 손색이 없다. 그밖에 명말청초 사천의 참상을 전하는 지배층들의 문집들도 한결같이 ‘屠殺者’로서의 장헌충을 전하고 있다.

어느 정도 事實에 기초하고 있다. 실제 사천은 명말청초의 동란기에 중국의 어느 지역보다 극심한 인적, 물적 피해를 당했고 이는 ‘屠蜀’이라 일컬어질 정도이다. 하지만 문헌자료들만이라도 꼼꼼히 대조하고 분석해 보면 명말청초 사천사회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과장되었다는 사실을 간파할 수 있다. 피해 정도가 과장된 것은 청조의 고의적인 왜곡 때문이 아니다. 청조는 정복 사업이 막바지에 이른 순치 18년(1661)에 전국의 토지와 인구를 파악했다. 당시 청조는 서남부에 치우친 사천 지방을 자신의 영역 안에 거의 편입하지 못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자신들이 장악한 극히 일부 지방의 수치를 사천의 수치로 기록했다. 이를 사천 전체의 수치로 오해한 청대의 지배층이나 현재의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를 주요한 근거의 하나로 삼아 ‘屠蜀’의 심각한 피해상황을 강조했고 ‘屠殺者’ 장헌충의 상을 만들어 내었다.⁷⁾

물론 階級鬪爭史觀에 입각하여 명말청초에 빚어진 ‘屠蜀’을 야기한 주체가 장헌충이 아니라 청군이나 신사층의 무장자위군이라 주장한 연구성과들도 있다.⁸⁾ 그러나 이 연구성과들은 장헌충이 ‘屠蜀’의 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데 머물고 있다. 그 주장이 설득력을 지니려면 ‘屠殺者’가 아닌 장헌충은 어떤 인물이었던가 하는 의문에 분명한 답변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까지 국내외의 연구성과 중 이런 측면에 주목하여 張憲忠의 ‘새로운’ 像을 제시한 연구성과는 없다.

본고는 사천의 장헌충 전설을 자료로 활용하여 전설 속에 투영된

2002년 사천의 巴蜀書社에서 당시의 文集 여덟 종류(『荒書』, 『蜀難敘略』, 『蜀碧』 등)를 모아 간행한 책의 제목이 『張憲忠剿四川實錄』인 것도 이런 시각을 계승한 것이다.

7) 이준갑, 『중국사천사회연구 1644-1911: 개발과 지역질서』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제1장 명말청초 동란기의 사천사회」.

8) 대표적인 연구성과로는 胡昭曦, 『張憲忠屠蜀攷辨 - 兼析湖廣填四川』 (四川人民出版社, 1980); 社會科學研究叢刊編輯部 編, 『張憲忠在四川』 (社會科學研究叢刊編輯部, 1981)에 수록된 論文들 참조. 한편 명말청초의 사천 상황을 분석하되 장헌충의 屠蜀 사실은 언급하지 않은 채 그의 抗清 사실만을 강조함으로써 소극적으로 장헌충의 ‘屠殺者’ 이미지를 부정한 연구성과도 있다. 王綱, 『大西軍抗清史略』 (北京: 燕山出版社, 1991).

장헌충의 이미지를 제시함으로써 이런 의문에 적극적으로 대답하려 한다. 張獻忠傳説 103편을 수록하고 있는 四川民間文學叢書編輯委員會刊, 『四川張獻忠傳説選』(四川民族出版社, 1992)은 民草들의 세계관에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풍부한 자료를 담고 있다. 이 책에 수록된 전설들을 분석해 본다면 현재까지 주로 지배층의 세계관을 담고 그려진 명말청초의 사천사회와 장헌충에 대한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고의 제1장에서는 자료의 성격분석과 더불어 장헌충 전설의 주제와 내용, 유포지역들을 개관해 보고 아울러 자료로서의 유용성과 한계를 살펴볼 것이다. 제2장에서는 전설 속에 투영된 명말청초의 사천사회의 모습을 제3장에서는 전설에 반영된 張憲忠의 像(=이미지)을 살펴보면서 어떤 내용과 논리적 구조를 갖추었는지 분석해 볼 것이다.

본고는 전설을 역사학의 입장에서 접근함으로써 역사와 문학의 융합을 시도하여 역사학의 내용을 보다 풍성하게 한다는 점, 지배층이 남긴 문헌자료에 기초한 명말청초의 사천사회의 모습과 張獻忠 像과는 전혀 다른 民草들의 세계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Ⅱ. 傳説의 主題와 流布地域

張憲忠 傳説 103편을 수록한 『四川張獻忠傳説選』⁹⁾은 『四川民間文學叢書』編輯委員會에서 기획한 『四川民間文學叢書』의 일환으로 간행되었다. 각 전설은 ① 제목 ② 搜集 整理者 이름 ③ 내용 ④ 구술인 이름 ⑤ 유포 지역이라는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순서는 구비문학을

9) 張武德·張洪流 編選, 『四川張獻忠傳説選』(『四川民間文學叢書』, 四川民族出版社, 1992).

合計	2	9	5	3	12	8	9	6	1	3	9	2	16	1	1	1	15	103
*根據: 張武德·張洪流 編選, 『四川張獻忠傳說選』(『四川民間文學叢書』, 四川民族出版社, 1992).																		

우선 장헌충의 생애에 관한 전설은 출생 관련 2편, 성장 관련 9편, 사망 관련 5편으로 모두 16편이다. 이는 장헌충 전설 103편 가운데 15.5%를 차지한다. 생애 전설은 장헌충은 하늘의 燕子星이 下凡한 인물이라는 神異적인 내용을 담은 출생 전설과 어린 시절에 공부보다는 무예를 익혀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었다는 성장 전설, 장헌충 사후 주민들이 그를 기려 塑像을 만들거나 무덤에 경의를 표했다는 사망 전설로 구성되어 있다. 생애 전설 16편 가운데 56.3%에 해당하는 9편이 사천 북부 順慶府 西充縣에 유포되었으며 25%인 4편이 사천 서북부 綿州 梓潼縣에 유포되었다. 요컨대 사천 북부, 북서부에 위치한 順慶府 西充縣과 綿州 梓潼縣이 장헌충 생애 전설의 집중 유포지역인 셈이다.

다음으로 장헌충의 활동 전설은 첫째 節期와 地名의 由來에 관한 것을 들 수 있다. 유래 전설은 절기 관련 3편, 지명 관련 12편으로 모두 15편이다. 이는 장헌충 전설 103편 가운데 14.5%를 차지한다. 그 가운데 절기 관련 전설 3편은 모두 端午節에 관련된 것이다. 장헌충이 사천에서 만난 한 착한 여인(죽은 오빠와 울케가 남긴 큰 아이는 업고 자신의 작은 아이는 걸려서 피난 가는)에게 자신의 군대가 악인들을 죽일 때 쑥(菖蒲가 더해지는 경우도 있음)을 집밖에 걸어두어 죽음을 피하라고 말했고 그녀는 이웃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 모두 참화를 벗어났다. 그 날이 마침 단오절이었다. 이것이 단오절에 때문이나 벽에 쑥을 내걸게 된 유래라고 전설은 언급하였다.¹⁰⁾ 이 전설은 사천 서부의 성도부 灌縣, 成都·自貢, 사천 동부의 重慶府 長壽縣 일대에 유포되어 있다.

10) 申朝興 搜集整理, 「端陽挂陳艾(一)」(『四川張獻忠傳說選』), pp.37-38; 陳學銘 搜集整理, 「端陽挂陳艾(二)」(『四川張獻忠傳說選』), pp.39-40; 李元江 搜集, 「挂艾蒲的來歷」(『四川張獻忠傳說選』), pp.41-42.

한편 이 단오절 전설은 버드나무 지명 전설로도 분화되었다. 전설의 다른 내용들은 비슷하지만 중요한 차이는 장헌충이 문 앞에 꽃으라고 말한 것은 버드나무(楊柳)였다는 점, 이를 꽃고 살아난 주민들이 그 후 마을 거리를 버드나무거리(楊柳街)로 불렀다는 점이다. 즉 쑥이나 창포를 매달았다는 단오절 전설과는 달리 버드나무는 地名 由來 전설의 素材가 되었다. 이 전설은 중경부 일대에 2편이 유포되어 있다.¹¹⁾

端午에 쑥을 캐서 문밖에 내거는 풍습은 이미 南朝 梁代의 문헌인『荊楚歲時記』에서도 언급될 정도로 연원이 오래되었으며 중국 각지에 퍼져있는 풍습이다. 이것은 쑥의 기운이 독한 기운이나 질병, 상서롭지 못한 것이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는 주술적 의미가 있다. 단오에 꽃는 버드나무도 강인한 생명력을 흡수하고자 하는 주술적 효과를 기대한 풍속이다.¹²⁾ 즉 쑥의 액막이 효능과 버드나무의 생명력이 사천 주민들에게 장헌충 군대의 도륙에서 벗어나 목숨을 구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하고 마침내 단오의 쑥 걸기 전설과 버드나무 지명 전설을 탄생시킨 것이다.

원래 이 전설은 장헌충은 착한 사람은 죽이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출발했다. 이 메시지는 장헌충이 닦치는 대로 사천 주민들을 도륙했다는 기존 문헌자료들의 서술과는 상반된 것이다. 전설의 상반된 입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전설은 그 착한 사람이 이웃에게 죽음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 주어 쑥을 매달거나 버드나무를 꽃아 놓은 사람은 누구나 장헌충 군대의 칼날을 피했다는 내용으로 마무리 된다. 장헌충 군대가 제거하려 했던 악인들조차도 쑥과 버드나무 덕분에 살 수 있었다. 지역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함께 동란기의 위협에서 벗어난 사례를 이 전설은 언급하고 있다.

장헌충 활동 전설의 두 번째는 戰鬥에 관한 것이다. 전투 전설에 등

11) 田靜 搜集, 「楊柳街的來歷」(『四川張獻忠傳説選』), p.43; 于飛·李國光 搜集 整理, 「重慶楊柳街的由來」(『四川張獻忠傳説選』), pp.44-45.

12) 梅娟娟, 「端午節“菜艾”習俗的流變及其文化思考」(『黑龍江史志』 2010-1), pp.132-133.

장하는 상대는 각각 明軍 8편, 鄉村自衛集團 9편, 淸軍 6편, 大順軍 1편이며 도합 24편에 달한다. 이는 장헌충 전설 103편 가운데 23.3%를 차지하며 다른 주제 전설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다. 그중 明軍이나 鄉村自衛集團과의 전투를 주제로 한 전설은 <表 1>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四川의 西部(성도부 일대), 東部(중경부 일대), 北部(순경부 일대) 각처에서 전승되고 있다. 이는 명군이 농민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명말 사천에서 집요하게 장헌충 군대를 추격했던 사실과,¹³⁾ 사천각지에서 紳士가 主導하는 鄉村自衛集團과 장헌충의 군대가 무력 충돌했던 사실을 반영한다.¹⁴⁾ 반면 淸軍과의 전투 전설 5편 중 4편은 사천 북부인 順慶府 西充縣에 집중되어 있고 李自成이 이끈 大順政權의 군대와의 전투를 소재로 한 유일한 1편의 전설은 사천북부 일대에만 유포되어 있다. 사실 장헌충의 죽음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 청군과의 전투전설은 民草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언급해야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기억하기에 썩 유쾌한 내용을 담은 것은 아니다. ‘打富濟貧’, ‘勸善懲惡’을 통해 자신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었다고 생각하는 장헌충이 휘하 장수의 배신과 밀고 때문에 이민족인 滿洲族의 습격을 받아 피살되었기 때문이다. 장헌충의 사망지인 西充縣에 청군과의 전투전설이 집중되고 다른 지역으로 널리 유포되지 않은 것은 썩 내키지 않지만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민초들의 이중적인 정서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장헌충의 죽음을 주된 내용으로 한 사망전설 5편 가운데 4편이 西充縣에 집중된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농민반란군끼리의 전투였던 大西軍과 大順軍이 충돌한 順慶府 전투도 民草들의

13) 崇禎(1628-1644)年間 후반기에 兵部尙書 楊嗣昌이 농민반란군을 소탕하기 위해 펼친 이른바 四正六隅, 十面羅網 전략(농민반란군의 활동이 두드러진 전국 열개 지역이 연합 작전을 구사하여 포위망을 형성하여 이들을 소탕한다는 작전), 四川巡撫 邵捷春이나 장수 左良玉 등의 지휘 하에 명군이 장헌충 군대와 사천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인 사실은 張云俠, 「張獻忠三次入川述論」(『張獻忠在四川』), pp.154-164 참조.

14) 신사 주도의 향촌자위집단과 대서정권의 충돌에 관해서는 山根幸夫, 「大西政權と紳士層の對應」(『明清時代の政治と社會』,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1983), pp.174-179 참조.

입장에선 썩 즐겨 기억할만한 일은 아니다. 그래서인지 민초들은 이 전설에서 두 주인공인 대서군 장수 馬元利(실존인물)와 대순군 軍士 杜黑娃(실존인물인지 가공인물인지 불명)를 친형제와 다름없는 관계였다고 설정하고 전투 후에 죽어가는 杜黑娃의 입을 통해 ‘부득이하게 각자 주인을 위해 싸웠을 뿐이었다’고 말하게 함으로써 마치 골육상쟁의 현장을 보는 듯한 안타까움 들도록 이야기를 전개해 놓았다.¹⁵⁾

전투 전설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확고한 정치 세력으로 뿌리내리지 못한 장헌충의 大西政權이 사천 각지에서 좌충우돌하며 다양한 적대 세력과 전투를 치렀던 현실을 반영한다. 그 적대 세력의 한 축은 崇禎年間의 明軍, 順治年間의 淸軍은 물론 李自成이 이끄는 大順政權의 군대가 차지한다. 이들 역시 장헌충 군대처럼 외부에서 사천으로 유입한 세력이었다. 이들은 사천 지역의 주도권 장악을 둘러싸고 장헌충 군대와 경쟁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점을 주목한다면 장헌충 군대가 이들과 무력으로 자웅을 겨룬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했다.

그러나 또 다른 적대 세력이었던 사천의 紳士와 地主가 주도한 鄉村自衛集團은 장헌충 군대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 포섭 대상이 되어야 했다. 大西政權의 정치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토착 세력의 포용이 불가피했다. 물론 장헌충이 1644년 대서정권을 수립한 후 신사 세력을 포섭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한 사실은 확인 된다. 기왕의 문헌자료들에서 대서정권에서 과거로 신사를 선발하고 관료를 감찰하였다거나,¹⁶⁾ 과거의 팔고문을 변경하여 策論으로 시험을 치렀다거나,¹⁷⁾ 과거를 시행하여 향시합격자 여든 명과 회시 합격자 원 명을 선발했으나,¹⁸⁾ 참된 인재를 구하지 못했다며 한해에 두 번이나 과거를 실시하기도 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¹⁹⁾ 당시의 성도에 거주하며 객관적으로 정

15) 王道玉·潘大德 搜集整理, 「插旗山」(『四川張獻忠傳説選』), pp.218-219.
 16) 歐陽直, 『蜀亂』(民國元年 重刊本, 中國野史集成, 巴蜀書社), 9뒤.
 17) 傅迪吉, 『五馬先生紀年』(四川人民出版社, 1981) 卷上, 乙酉年(1645), p.103.
 18) 彭遵泗, 『蜀碧』(『張獻忠剿四川實錄』本, 巴蜀書社, 2002) 卷二, p.149.

황을 기록하였을 서양선교사 역시 “처음에 成都의 명나라 관원들은 장헌충이 오자 급히 도망갔다. 그후 장헌충이 왕을 칭하고 관직을 나눠 주며 임무를 맡기자 마치 폭우가 쏟아진 후에 구름이 걷히고 안개가 흩어지는 것처럼 태평스러워졌다. 또 장헌충이 용감하고 능력도 있어 능히 나라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일반 관료들이 모두 나와서 임무를 감당했다”고 진술하였다.²⁰⁾ 신사충 뿐만 아니라 명의 관료도 장헌충이 성공적으로 포섭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초기의 상황은 1645년 겨울에 돌변한다. 장헌충이 成都에서 과거를 시행하겠다고면서 수많은 지식인들을 모아 모조리 살해해 버린 것이다.²¹⁾ 그때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 貢院으로 왔다가 결박당해 죽임당한 사람들이 남긴 붓과 벼루가 산더미처럼 쌓였다고 전해진다.²²⁾ 장헌충 군대의 지속적인 살인에 반감을 품은 신사충이 점차 대서정권에 등을 돌리자 장헌충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大西政權이 신사충을 포섭하지 못하고 대결로 치달은 행위는 정권 붕괴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이런 일련의 흐름은 장헌충 군대가 流寇의 행태를 미처 극복하지 못해 정권을 유지하는 역량이 부족했다는 점을 의미한다.²³⁾

그런데 전설은 성도로 과거에 응시하러 온 지식인들을 살육한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打富濟貧’, ‘勸善懲惡’이라는 관점에서 장헌충 군대가 한 두 사람의 신사나 지주를 살해한 전설은 다수 유포되어 있지만 오히려 이 대사건에 관한 전설은 없다. 이런 침묵

19) 傅迪吉, 『五馬先生紀年』(道光2年 抄本)卷上, 5앞, 乙酉年(1645).

20) 古洛東(Gourdon), 『聖教入川記』(四川人民出版社, 1981), p.19.

21) 顧誠, 『張獻忠與知識分子』(『張獻忠在四川』), p.196; 山根幸夫, 『大西政權と紳士層の對應』(『明清時代の政治と社會』,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1983).

22) 彭遵泗, 『蜀碧』(『張獻忠剿四川實錄』本, 巴蜀書社, 2002) 卷三, p.159.

23) 장헌충과 그의 군대가 大西政權을 수립했지만 流寇 行態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배력의 한계를 드러낸 사실에 관해서는 이준갑, 『중국사천사회연구 1644-1911』, pp.30-32.

은 지식인의 죽음에 대한 民草들의 미묘한 감정과 입장을 반영한다. ‘打富濟貧’이나 ‘勸善懲惡’의 논리로는 정당화할 수 없는 지식인들의 살해 사실을 전설로 남겨 놓으면 장헌충의 살인을 정당화해 온 일관된 입장에 흠결이 생긴다. 따라서 民草들은 이 사실을 전설로 남길 수 없어 망각의 늪 속으로 매장해 버렸다.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집단기억의 속성이 장헌충 전설에도 반영되어 있다.²⁴⁾ <표 1>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張憲忠이 수립한 大西政權의 도읍지인 成都에서 그와 관련된 전설이 거의 없는 것도 이런 이유와 더불어 장헌충에게 때죽음을 당한 成都 일대 紳士層의 강렬한 반감이 작용한 때문으로 보인다.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은 忘却하는 民草들의 이런 태도는 신사충에게서도 확인된다. 신사충은 문헌자료를 통해 자신들이 기억하고 싶은, 장헌충의 폭력적인 면을 집중적으로 기록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의 민심을 어루만진 면에 대해서는 침묵했다.²⁵⁾ 그러기에 민초들이 전승한 장헌충 전설은 문헌자료에서 침묵하는 장헌충의 ‘새로운’ 면모를 밝히는데 유용한 자료이다.

勸善과 懲惡을 주제로 한 장헌충 전설은 바로 그런 ‘새로운’ 면을 밝히는 자료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소재들이다. 장헌충 활동 전설의 세

24)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집단기억의 대표적 사례는 2차대전에 대한 일본인들의 집단기억이다. 일본인들의 2차대전에 관한 기억은 도쿄공습,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투하 등 자신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측면에 집중되었다. 난징대학살과 같이 가해자 입장에서 기억해야할 사건은 애써 축소하거나 잊어버리려 한다. 미조구치 유조 지음, 서광덕 외 옮김, 『중국의 충격』 (소명출판, 2009), pp.48-53.

25) 장헌충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는 저술들은 저자가 친히 당시의 실상을 목도하고 기록한 1차 자료(『聖教入川記』, 『蜀亂』, 『荒書』, 『五馬先生紀年』 등)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1차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한 2차 자료(『綏寇紀略』, 『續綏寇紀略』, 『滄溟囊』 등), 2차 자료에 입각하여 기록한 3차 자료(『廣陽雜記』, 『明季南略』, 『明季北略』, 『蜀碧』 등), 3차 자료에 입각하여 저술한 4차 자료(『明史』, 『蜀破鏡』, 『蜀龜鑑』, 嘉慶·道光年間 이래의 地方志 등)로 분류할 수 있다. 1차 자료에서 4차 자료로 갈수록 장헌충에 대한 왜곡과 폄하가 심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任乃强, 『關於張獻忠史料的鑑別』 (『張獻忠在四川』), pp.201-209.

번째인 勸善 傳說是 恩人報答 3편, 住民保護 9편으로 모두 12편이다. 이는 장헌충 전설 103편 가운데 11.7%에 해당한다. 전설에 등장하는 恩人是 어린 시절의 장헌충이 곤경에 처했을 때 도와준 흰 두건을 쓴 자,²⁶⁾ 어린 장헌충에게 짓을 먹여준 유모,²⁷⁾ 농민군 포로에게 떡을 준 노파²⁸⁾이다. 세 전설 가운데 장헌충과 직접관련 있는 것은 앞의 두 편으로 어린 시절의 도움을 잊지 않고 기억했다가 은혜를 갚는다는 내용이며 세 번째 전설은 농민군이 은혜를 갚는다는 전설이다. 이 세 전설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장헌충이나 농민군도 은혜를 입으면 기억했다가 보답할 줄 아는 소박한 인간이라는 점이다.

이런 은혜 갚기는 첫 전설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난다. 전설의 내용은 이렇다. 어린 시절 장헌충이 섬서에서 四川 遂寧縣으로 장사하러 왔다. 그때 말이 부자 집 문 앞에 똥을 누었고 이를 본 주인은 장헌충에게 말똥을 치우라고 했다. 혹한에 언 손으로 말똥을 치우자 어느 청년이 흰 두건을 벗어 사용하라고 주었다. 훗날 농민군의 수령이 되어 遂寧縣에 당도한 장헌충은 흰 두건을 두른 사람들은 죽이지 못하게 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수령현 주민들이 모두 하얀 두건을 둘러 죽음을 면했다. 장헌충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는 은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도 살려주었던 것이다. 흰 두건은 喪服이었으므로 장헌충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 遂寧縣에 다시 왔을 때 恩人이 여전히 흰 두건을 두르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은인을 해치지 않으려는 장헌충의 결심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한 것이다. 전설은 우직하고 투박한 방식이지만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소탈한 인간 장헌충의 모습을 전하고 있다.

주민 보호 전설은 文昌廟나 關帝廟 등 祀廟의 유지와 보수(梓潼縣),²⁹⁾ 明軍이 불태운 시장대신 새 시장을 건설하고 군량을 풀어 빈민을

26) 常歡 搜集整理, 「包白帕的來歷」(『四川張獻忠傳說選』), pp.46-47.

27) 張洪流 搜集整理, 「峨眉訪仙救義母」(『四川張獻忠傳說選』), pp.142-145.

28) 魏仲云 搜集, 「高店子的黃糕粑」(『四川張獻忠傳說選』), pp.54-56.

29) 梓潼縣 文昌廟에 대한 보수와 土地 百畝를 ‘下賜’한 전설은 謝煥智 搜集整理,

구제하며(射洪縣),³⁰⁾ 임산부의 급작스런 해산을 도와주고(西充縣),³¹⁾ 병든 여인을 치료하며(西充縣),³²⁾ 金銀·衣服·糧食을 풀어 빈민구제에 나서고(西充縣),³³⁾ 계란 다섯 개를 주인에게 돌려주는(南充縣)³⁴⁾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평상시라면 이런 사례들은 국가의 지배권을 대신하는 지방관이나 행정기구, 공공질서의 일부를 떠맡은 신사층이 해결하였다.³⁵⁾ 하지만 당시에는 명조는 이미 붕괴하였고 지방관도 도주하여 없거나 있더라도 縣城 내에서나 겨우 영향력이 미치는 고립된 존재에 불과했다. 신사층 역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급급하여 結寨自保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런 와중에서 장헌충이나 대서정권은 나름대로 지역의 질서를 유지하며 일상의 삶을 보장해주는 존재로 전설 속에서 등장하고 있다.

이런 주민 보호전설에 반영된 호의적인 인식은 사충현, 서충현, 남충현 등의 사천 북부나 채동현 같은 사천 서북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大西政權의 首都인 사천 서부의 成都와 주변지역에는 이런 유형의 전설이 한 편도 유포되어 있지 않다. 침묵하는 성도 중심의 천서지역과 널리 알리는 채동현·서충현 중심의 사천서북지역의 입장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

장헌충 활동 전설의 네 번째인 懲惡傳説 특히 除惡 관련 전설은 사천 서부와 북부, 동부 등 사천 대부분 지역에 유포되어 있다. 除惡 전

「聯宗認祖」(『四川張獻忠傳説選』), pp.180-182. 梓潼縣 關帝廟에 대한 수리는 謝煥智 搜集整理, 「天大將軍」(『四川張獻忠傳説選』), pp.183-184.

30) 黃筠 搜集, 「義軍小故事三則」(『四川張獻忠傳説選』), pp.97-98. 이 전설 속에는 짝막한 세 개의 이야기가 들어 있다. 부자가 농민군에게 죽임당한 이야기, 착한 사람을 보호한 이야기, 太和鎮이라는 시장을 건설한 이야기가 그것이다.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가 주민 보호 전설에 속한다.

31) 何興澤 搜集, 「好人」(『四川張獻忠傳説選』), pp.255-256.

32) 李汝平 搜集整理, 「西王救民女」(『四川張獻忠傳説選』), pp.265-266.

33) 張紅梅 搜集整理, 「三堆石」(『四川張獻忠傳説選』), pp.291-292.

34) 彭朝斌 搜集整理, 「蛋歸原主」(『四川張獻忠傳説選』), pp.237-238.

35) 明代 紳士層의 社會秩序 維持를 위한 公的 役割에 대해서는 吳金成, 『中國近世社會經濟史研究 -明代紳士層의 形成과 社會經濟的 役割』(一潮閣, 1986) 참조.

설은 16편으로 단일 주제로서는 가장 편수가 많다. 除惡 전설이 가장 많이 유포된 원인은 명말청초 사천에서 발생한 극심한 사회동란의 원인을 제공한 이가 惡人이었다는 民草들의 인식 때문이었다. 打富 전설 2편을 포함한 懲惡傳說是 모두 18편으로 장헌충 전설 103편의 17.5%를 차지한다. 除惡 전설에 등장하는 악인들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악한 지방관, 악덕지주나 부자, 무뢰 따위로 평상시에도 늘 존재하는 부류들이다.³⁶⁾ 다른 하나는 동란기에 흔히 나타나는 土賊이다.³⁷⁾ 마지막으로 명말청초 사천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는 존재로 장헌충을 사칭하며 살인과 약탈을 자행한 가짜 장헌충이다.³⁸⁾ 除惡 전설은 장헌충을 권력과 재력, 폭력에 의지하여 명말 사천사회의 질서를 항상 동요시키던 개별적인 악인을 제거할 뿐 아니라 동란기에 무장하여 활개 치던 토비들의 집단적인 폭력과 악행을 뿌리 뽑는 인물로 전하고 있다.

이상에서 장헌충 전설의 유포지역과 주제들을 一瞥해 보았다. 전설의 유포 수량을 살펴보면 대서정권의 도읍지였던 성도를 비롯한 사천 서부가 적고 梓潼縣·西充縣일대의 사천서북부가 가장 많다. 장헌충의 행적을 긍정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전설도 사천 서북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장헌충 전설이 집중적으로 형성, 유포되고 그에 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주로 형성된 지역은 梓潼縣(張憲忠 塑[神]像 所在地)과 西充縣(張憲忠 死亡地)을 포함한 사천 서북부지역이라 할 수 있다.

36) 악한 지방관을 제거한 전설은 杜延聰 搜集整理, 「巧破西充城」(『四川張獻忠傳說選』), pp.280-286. 악덕지주와 부자를 제거한 전설은 에 대한 전설은 段緒清 搜集整理, 「賣月亮」(『四川張獻忠傳說選』), pp.80-83. 무뢰를 제거한 전설은 金青禾 搜集整理, 「路遇寄案」(『四川張獻忠傳說選』), pp.157-162 및 金青禾 搜集整理, 「巧治張潑婦」(『四川張獻忠傳說選』), pp.163-169.

37) 土匪를 제거한 전설은 許德貴 搜集整理, 「張砍頸傳記」(『四川張獻忠傳說選』), pp.60-64.

38) 簡州에서 날뛰던 가짜 장헌충을 잡아 해악을 제거했다는 전설은 謝榮才 搜集整理, 「奸馬碑」(『四川張獻忠傳說選』), pp.123-125.

Ⅲ. 傳説에 투영된 明末淸初 四川社會

명말 사천주민들은 명의 宮室에서 필요한 목재를 채취하거나 크고 작은 반란의 진압비용을 부담하느라 극심한 궁핍에 시달렸다. 이때 土賊과 流寇가 출현하여 혼란을 증폭시켰다. 流寇의 대표적 존재였던 장헌충군은 崇禎6년(1633) 섬서에서 사천 북부로 최초로 침입한 이래 1637년과 1639년, 1641년에도 침범하였다.

明軍은 장헌충 군대나 토적에게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고 결국에는 장헌충 군대에게 패배하였다. 張獻忠은 순치원년(1644) 11월 成都에서 大西政權을 수립하고, 승상과 육부 및 하급관청을 설치하였다. 대서정권의 핵심부에 紳士層이 참여하였으나 流寇의 색채를 극복하지 못한 張獻忠集團은 과행을 거듭하면서 행정 능력을 확충하는 일에 실패하였고 지배계층인 紳士層과 住民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이들은 鄉村自衛集團을 조직하여 大西政權에서 파견한 지방관을 살해하고 저항하였다. 사천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도적떼가 되어 殺戮과 掠奪을 서슴지 않았고 향촌자위집단도 주도권을 다투면서 서로를 죽였다. 남명세력도 사천의 명 패잔군과 연합하려 하였지만 여의치 않았다. 무정부 상태에 빠진 사천에서는 장헌충군 뿐만 아니라 淸軍과 南明軍도 살육에 가담하는 慘狀이 연출되었고, 자연재해와 전염병, 기근으로 인한 人口逃散 현상도 나타났다. 극도의 혼란스러움이 야기되고 막대한 인적, 물질 피해가 발생한 원인은 명(의 패잔)군, 장헌충 군대, 남명군, 향촌자위집단 등과 같은 다양한 세력들이 살인과 약탈에 가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³⁹⁾ 기왕의 문헌자료들을 토대로 밝혀낸 명말청초 사천의 사회상은 이와 같다.

張獻忠 傳説 속에서도 이런 세력들은 여전히 등장한다. 하지만 이들은 각각 사천사회의 한 축을 구성하는 유력한 세력으로서 인식되는 것

39) 이준갑, 『중국사천사회연구 1644-1911: 개발과 지역질서』, pp.27-32; 胡昭曦, 『張憲忠屠蜀攷辨 -兼析湖廣填四川』 (1980), 「第一章 張獻忠屠蜀의真相」; 王綱, 「論明末淸初四川人口大量減少的原因」 (『張獻忠在四川』), pp.61-75.

이 아니라 反 張憲忠 세력이라는 하나의 관점에서 파악된다. <表 1>에 나타난 전설의 큰 주제들 가운데 戰鬪나 懲惡과 같이 장헌충 군대와와의 침예한 갈등을 전제로 한 주제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천사회에 장헌충 (지지) 세력과 反 장헌충 세력의 대립 구도가 뚜렷이 형성되었음을 나타낸다. 戰鬪나 懲惡 행위는 두 세력간의 대립 상태가 무력 대결로 귀착된 사실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反 張憲忠 세력들 간에 연합전선이 구축된 것은 아니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장헌충 군대가 성도를 점령한 이후에는 사천사회에서 질서를 유지하던 구심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反 張憲忠 세력에는 집단적 존재로서 明軍, 鄉村自衛集團, 淸軍, 大順軍이 있었고 개별적 존재로서 ‘惡人’(惡德地主나 土豪劣紳)이 있었다.

反 張獻忠 세력의 중추는 明軍이었다. 명군과의 전투 전설은 장헌충이 명군의 매복에 걸린 후 산에서 포위되어 군량과 마초는 물론 구원병도 없는 위기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이야기,⁴⁰⁾ 衆寡不敵으로 패한 이야기⁴¹⁾ 등의 패전 전설과 명의 대군 5만을 매복으로 전멸시킨 이야기,⁴²⁾ 深山幽谷으로 명군을 유인하여 기습한 이야기⁴³⁾ 등 승전 이야기가 뒤섞여 있다. 명군과 치열하게 전투를 치른 상황이 전설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일반적인 전투 상황을 담은 이런 유형의 전설은 문헌자료에서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아마도 明軍과 장헌충 군대의 대결을 전하는 전설 가운데 白眉는 음모와 모략으로 점철된 ‘가짜’ 전설일 것이다. 가짜 전설의 첫 번째는 가짜 장헌충 전설로서 명의 官府에서 내세운 가짜 장헌충이 사천 주민을 도륙한 이야기이다. 가짜 장헌충은 문헌자료에는 등장하지 않고 전설에서만 등장한다. 전설에 따르면 가짜 장헌충의 활동 무대는 성도와 서남쪽으로 접한 成都府 簡州였다. 중경을 점령한 후 성도로 진군하던

40) 楊泗富 搜集整理, 「插旗山」(『四川張獻忠傳說選』), pp.65-66.

41) 張武德 搜集整理, 「黃龍搖天動」(『四川張獻忠傳說選』), pp.77-78.

42) 劉長榮 搜集整理, 「梓潼之戰」(『四川張獻忠傳說選』), pp.84-86.

43) 史元學 搜集整理, 「大戰火燒橋」(『四川張獻忠傳說選』), pp.89-91.

장헌충이 (1644년 5월 상순이후-7월 하순무렵⁴⁴⁾) 簡州 桂花鄉 船板沟村에 이르자 타고 있던 말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이상하게 여긴 장헌충은 척후병을 보내 사정을 탐색했다. 돌아온 척후병은 충격적인 사실을 보고했다. 십리쯤 떨어진 周家鄉에서 자칭 장헌충이라는 자가 “나는 장헌충이다. 오로지 사천사람들을 죽인다. 너희들을 모조리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고 외쳤다. 그리고는 백성들을 포위하여 한사람씩 목을 벤다는 것이었다. 분노한 장헌충이 군대를 휘몰아가니 온 들판에 시체가 늘려 있고 피가 강물처럼 흘렀다. 장헌충은 그를 사로잡아 자초지종을 캐묻자 가짜 장헌충은 자신은 官府의 사람인데 장헌충에게 민심이 쏠릴 것을 우려한 上官이 자신에게 장헌충으로 가장하여 백성을 죽여 장헌충의 명성에 손상을 입히도록 하게 했다고 실토했다. 장헌충은 그를 죽이고 주민들에게 자신은 打富濟貧하며, 貪官汚吏만 죽인다고 해명했다.⁴⁵⁾

문헌자료에 따르면 簡州에서도 崇禎17년(1644) 장헌충 군이 주민들을 대거 살해한 것이 확인된다.⁴⁶⁾ 따라서 주민의 도륙을 소재로 하는 가짜 장헌충 전설이 탄생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다. 그렇다면 가짜 장헌충을 등장시킬 수 있는 전설 속의 上官은 실제로는 누구일 개연성이 있을까? 분명하지는 않으나 다수의 소극적인 관료들 속에서 이런 전설을 구사할 정도로 적극적인 관료는 대체로 두 사람으로 범위가 좁혀진다. 한 사람은 成都 陷落 전에 川北道에서 四川巡撫로 발탁된 龍文光, 다른 한 사람은 그와 함께 3천의 구원병을 이끌고 順慶府에서 成都로 달려온 川北總兵 劉佳印이다. 이들은 순경부에서 함께 근무했으며 인색한 蜀왕이 군자금을 기부하지 않아 곤경을 겪으면서도 함께

44) 이 전설의 시간 배경을 승정 17년 5월 상순 이후-7월 하순으로 상정하는 이유는 이렇다. 첫째 簡州에서는 승정17년 5월 1일에도 주민들이 州衙門에 錢糧을 납부할 정도로 명조의 지배질서가 유지되었다. 傅迪吉, 『五馬先生紀年』(道光2年 抄本)卷上, 4앞, 乙酉年(1645). 成都는 승정17년 8월에 장헌충 군대의 수중에 들어갔다. 歐陽直, 『蜀亂』(巴蜀書社), 8뒤.

45) 謝榮才 搜集整理, 「奸馬碑」(『四川張獻忠傳說選』), pp.123-125.

46) 傅迪吉, 『五馬先生紀年』(道光2年 抄本)卷上, 4뒤, 乙酉年(1645).

成都 守城을 지휘하다가 성이 함락되자 같은 곳에서 동시에 자결한 인물이다. 특히 유가인은 장헌충 군이 성도로 압박해오자 성밖으로 나가 一戰을 不辭할 정도로 적극적이었다.⁴⁷⁾ 명군의 주민살해는 명말청초 동란기의 사천사회에서는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 전설의 흐름에 입각한다면 명조의 질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관군이 주민을 살해하는 일은 극단적인 임기응변으로서 고위 관료만이 결단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었다. 四川巡撫와 川北總兵이라는 四川의 최고위급 文武官僚의 개입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다. 反 장헌충 세력의 중추였던 명의 관료들이 장헌충에게 얼마나 강한 적대감을 품었던가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전설이다.

가짜 전설의 두 번째는 장헌충이 內江王을 내세워 10만에 달하는 명의 패잔군을 제거했다는 이야기이다. 內江王 朱至沂는 蜀王의 후예로 萬曆 41년(1613)에 왕으로 봉해진 실존인물이다.⁴⁸⁾ 1645년 장헌충 군대가 성도를 점령할 때 蜀王을 비롯한 蜀王府의 많은 宗室이 자결했는데⁴⁹⁾ 그는 자결하지 않고 농민군에 사로잡혀 죽임을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⁵⁰⁾ 가짜 내강왕에 대한 기록은 기왕의 문헌자료에도 간략하게 전해진다. 장헌충이 성도를 함락시키자 明의 패잔군과 ‘草澤의 忠勇한 무리’ 10여만 명이 사천 북부인 中江縣과 射洪縣 등지에 주둔했다. 이때 巴縣출신의 進士 王應熊은 남명정권에서 ‘總督湖雲貴軍務’의 직함을 받고 貴州 遵義에 주둔하면서 사천의 명 패잔군을 수습하고 신사자위군과 제휴하여 명 왕실 회복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려 했다.⁵¹⁾

47) 彭遵泗, 『蜀碧』(巴蜀書社, 2002) 卷二, pp.144-145.

48) 『明史』(中華書局本) 卷101, 表2, 諸王世表2, p.2650.

49) 문헌자료에 따르면 成都가 張獻忠 군대에 함락당할 때 蜀王은 妃嬪들과 함께 궁궐의 우물에 투신했으며 蜀王府의 宗室인 成都王, 太平王 등도 뒤를 따랐다. 이때 內江王도 투신했다는 소문도 있었으나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 彭遵泗, 『蜀碧』(『張獻忠剿四川實錄』本) 卷三, p.144.

50) 장헌충 전설에는 그가 성도가 함락당할 때 농민군에게 사로잡혀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진다. 潘大德·王道玉 搜集整理, 「智殲“鐵壁軍”」(『四川張獻忠傳說選』), p.224.

51) 陳世松 主編, 『四川通史』 第5冊 (四川大學出版社, 1993), p.47.

그런데 양 진영의 거리가 천 여리에 달해 연락이 잘되지 않았다. 이때 홀연히 용모가 준수하고 영웅의 기상이 넘쳐흐르는 내강왕이 나타났다. 이에 軍人들은 왕응웅의 통솔을 거부하고 내강왕의 監國을 따랐다. 군대는 농민군과 싸웠으나 연전연패 했다. 내강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농민군과 싸워서 수백 인을 생포하고 수천인을 사로잡는 大勝을 거두었다. 내강왕은 포로들을 자신의 친위부대에 편입시켰다. 얼마 후 장헌충 군대가 공격해오고 내강왕의 친위부대도 안에서 호응하니 10만의 군대가 전멸했다. 내강왕은 장헌충이 보낸 가짜였다.⁵²⁾

이 기록을 통해 가짜 내강왕 사건의 대체적인 전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내용만으로는 명의 패잔군을 이끌던 장수는 누구이며 그는 왜 王應熊과 틈이 생겼는지, 장헌충은 왜 많은 촉왕부의 종실 가운데 하필 가짜 내강왕을 보냈는지, 실제로는 그가 누구인지 하는 의문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다. 장헌충 전설은 이런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십만의 군대는 원래 四川巡撫 龍文光 수하의 副將이었던 苟文進이 거느리는 ‘鐵壁軍’이었다. 중경부에서 장헌충 군대에 패한 철벽군은 潼川州(청대에 府로 승격), 射洪縣 일대로 도주했고 이 지역의 土賊과 鄉勇이 가세했다. 토착인들의 지원을 받게 된 철벽군을 장헌충 군대가 정면으로 상대하기가 여의치 않았다. 이에 장헌충은 계략을 써서 부하장수 馬元利를 內江王으로 변장시키고 明軍 복장을 한 부하 300여명을 딸려 潼川州 부근 安岳縣의 산골로 잠입시켰다. 이들은 苟文進이 王應熊에게 보낸 사신 둘을 사로잡아 가짜 內江王에게 알현시켰다. 두 사신은 苟文進에게 돌아가 王應熊의 답신을 건넸다. 王應熊은 苟文進의 벼슬이 높아지면 자신의 통솔을 따르지 않으리라 의심하여 副總兵이라는 낮은 직함을 내렸다. 苟文進이 격분하자 두 사신은 자신들이 만났던 內江王의 이야기를 꺼내며 ‘그를 모시고 小朝廷을 열면 江山을 얻지는 못할지라도 開國元勳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추겼다. 술깃해진 苟文進이 內江王을 만나보니 王冠과 王

52) 彭遵泗, 『蜀碧』(『張獻忠剿四川實錄』本) 卷三, p.157.

服을 입은 그는 崇禎皇帝가 內江王으로 봉한 金冊과 奉國將軍의 銀印을 보여주었다. 의심이 풀린 苟文進은 그를 모시고 스스로 太師와 兵馬大元帥로 칭했다. 장헌충의 養子 張(원래 姓은 艾)能奇가 공격해오자 칠벽군은 계속 패전했고 軍心이 동요했다. 內江王이 군대를 거느리고 전투에 나서 山寨들을 되찾고 安岳縣城을 함락시키고 潼川州城도 점령하였다. 內江王은 山寨(三星寨)를 나와 潼川州城으로 行宮을 옮겼고 鐵壁軍도 모두 입성하여 잔치를 벌였다. 이때 張能奇의 군대가 성밖에서 공격하고 馬元利(가짜 內江王)와 그의 부하들도 내응하여 鐵壁軍을 전멸시켰다.⁵³⁾

南明政權 휘하 문관들과 무관들의 대립과 불화,⁵⁴⁾ 명이 멸망한 후에도 남명정권에서 기득권 유지에 급급했던 신사층의 행태나⁵⁵⁾ 벼슬을 탐하는 지방 지식인들의 권력욕⁵⁶⁾ 등 당시의 일반적인 정황을 비추어 볼 때 文官 王應熊과 武將 苟文進의 대립과 질투, 고위관직을 넘보는 苟文進의 야심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反 장헌충 세력의 또 다른 증추로서 장헌충에게 무력으로 맞섰던 존재는 신사와 지주층이 이끈 鄉村自衛集團이었다. 명말청초의 동란기

53) 黃筠 搜集整理, 「智讖殘敵」(『四川張獻忠傳說選』), pp.202-206; 潘大德·王道玉 搜集整理, 「智讖“鐵壁軍”」(『四川張獻忠傳說選』), pp.222-225.

54) Lynn A. Struve, *The Southern Ming 1644-1662* (Yale Univ. Press, 1984), p.2.

55) 魯王政權과 唐王政權은 각각 浙東과 福建에 기반을 둔 국지적 정권이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신사와 유력자들은 자신들의利害 관계를 정치에 깊숙이 반영시켰다. 숙부격인 당왕과 조카뻘인 노왕사이에 통속 관계를 설정할 때 魯王 정권의 開國元老인 절강 출신의 紳士 張國維가 魯王의 唐王에 대한 臣屬을 거부한 것이나, 唐王이 여러 차례 湖南으로 도읍을 옮기려 한 것을 福建出身인 鄭芝龍이 좌절시킨 것은 이런 사례에 속한다. 紳士層의 地域利己主義는 내분, 무능과 상승 작용을 일으키며 두 정권을 단명으로 몰아간 중요한 이유였다. 顧誠, 『南明史』(中國青年出版社, 2003), pp.266-270.

56) 浙江 紹興府 紳士 집안 출신의 張燕客은 관직을 얻으려는 바람으로 紹興에 온 魯王에게 군사 작전을 진언하였다. 魯王이 벼슬 내리기를 망설이자 張燕客은 분노했다. 張燕客은 왕실 사람과의 연줄을 활용하여 魯王의 마음을 움직여 지역사령관인 總戎이라는 직책을 파격적으로 부여받았다. 張岱 著, 夏咸淳 校點, 『張岱詩文集』(上海古籍出版社, 1991), p.279.

에 사천 각지에서 향촌자위집단이 활동한 사실은 四川의 地方志에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기록되어 있으며⁵⁷⁾ 기왕의 연구성과에서도 분석되어 있다.⁵⁸⁾ 대부분의 기록과 연구는 주도세력의 신분과 자위집단의 활동 양상을 언급하는데 그치고 있다. 전설에서는 복잡 미묘한 내부사정도 자세히 언급하고 있어 향촌자위 집단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장헌충 전설 속의 향촌자위집단은 寨를 근거지로 삼아 동란의 위기를 넘기려 하였다. 이 때문에 전설 속에서 장헌충 군과 향촌자위집단의 대결은 모두 寨를 무대로 펼쳐진다. 다음 <表 2>는 장헌충 전설에 등장하는 寨를 모은 것이다.

<表 2> 張獻忠 傳說에 등장하는 寨

關聯事項 寨名稱	位置	主導者	張獻忠과 대결 양상	時間	傳說流布地
雙寨子	重慶府 巴縣	紳糧員外	攻擊 陷落	명조말년	巴縣
靑龍寨	重慶府 永川縣 靑龍山	羅 舉人	明軍이 공격 寨丁살해	명조말년	川東北
黃龍寨	順慶府 岳池縣	興隆場 里正	攻擊 陷落, 慰撫	大西軍入川後	岳池縣 興隆區
鹿角山寨		寨主 伍化平 (虎背熊腰 力氣過人)	聯合抗淸을 위해 장헌충이 說服 시도. 모락에 빠져 구사일생으로 도주	淸군이 사천을 공격하기 직전	川 西 川 北
扶君寨	順慶府 西充縣 多扶場 뒤	前任 兵部尙書 李乾德, 李完, 李兆(三李霸王)	衙役으로 가장한 장헌충 군대가 함락	淸북의 淸軍과 전투하는 도중	西充縣

57) 장헌충 전설이 유포된 지역의 자위집단에 관한 지방지 기록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乾隆 『江津縣志』 卷5, 寇逆, 8앞-10뒤; 民國 『江津縣志』 卷3, 前事志, 明末巨寇, 13앞-14뒤; 光緒 『長壽縣志』 卷7, 忠義, 5앞; 方象瑛, 「李儀部傳」, 康熙 『順慶府志』 卷9, 65앞뒤; 民國 『內江縣志』 卷2, 武備, 28뒤; 同治 『營山縣志』 卷18, 武備志, 6앞; 彭遵泗, 「鐵腳板傳」, 嘉慶 『眉州續志』 卷16, 文, 53뒤-54뒤.

58) 이준갑, 『중국사천사회연구 1644-1911: 개발과 지역질서』, pp.33-39; 山根幸夫, 「大西政權と紳士層の對應」 (『淸淸時代の政治と社會』,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1983), pp.174-179.

鼓樓寨	順慶府 西充縣 金山鋪 부근	財主豪紳, 寨 主 金天霸	장헌충 군대가 寨의 하 수구로 들어가 점령	불명	西充縣, 南充縣
鼓樓寨	順慶府 西充縣 鳳凰山에서 가 까운 곳		李乾德의 侄女가 복수하 려고 大西政權 禮部尙書 江鼎鎮이 강간했다 모함 했으나 장헌충이 눈치 채고 그녀를 죽임	청 군 과 의 전투를 준 비하던 중	西充縣, 南充縣
根據 : 위에서부터. 쪽수는『四川張獻忠傳說選』의 페이지. 劉祥義 搜集, 「智破雙寨子」, pp.70-71; 王瑞豪 搜集整理, 「智斗楊嗣昌」, pp.116-119; 金青禾 搜集整理, 「岳池黃龍香米」, pp.170-172; 段緒清 搜集整理, 「鹿角山弄險」, pp.193-201; 張武德 搜集整理, 「智取扶君寨」, pp.245-247; 張武德 搜集整理, 「夜襲鼓樓寨」, pp.248-252; 胡文舉 搜集整理, 「鼓樓寨除奸」, pp.269-274.					

寨는 방어시설이므로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외부에서 적이 침입하기 어려운 험산준령이나 강물이 감돌아 흐르는 절벽 위에 건설되었다. 사방이 깎아지른 듯 험한 절벽 위에 사람 키보다 높은 돌 벽을 쌓고 寨門 두 곳이 모두 돌다리를 통해 외부와 연결되었다거나(雙寨子), 첩첩산중에 초목이 무성하며 嘉陵江이 감돌아 흐르는 鹿角山(大巴山の支脈) 위에 위치하여 험준함이 梁山泊보다 더하다거나(鹿角山寨), 사방이 깎아지른 절벽위에 위치하여 한 갈래 오솔길만이 山寨 안팎을 연결한다는(鼓樓寨) 지척은 寨의 험준한 입지조건을 언급한 것이다. 寨에는 糧草가 가득히 쌓여 있었으며 간혹 농사를 지어 식량을 생산하는 곳도 있었다.(黃龍寨)

험준한 지세와 비축한 식량에 의지하여 저항하는 寨를 공략하기가 무척 어려웠다. 따라서 채를 성공적으로 점령하려면 계교를 써야 했다. 「智破雙寨子」나 「智取扶君寨」와 같이 寨 전설에 ‘智破’, ‘智取’라는 제목이 붙은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다. 雙寨子, 扶君寨 전설에서는 장헌충이 어떤 방식으로 채를 점령했는지 자세하게 언급했다. 雙寨子에는 먼저 火攻을 시도하였다. 떡갈나무 막대기에 흙을 과 화약을 채운 후 불을 붙여 발사하였으나 폭발하는 소리만 요란했고 효과는 없었다. 날이 어두워져 지척을 분간하기 어려워지자 장헌충은 수백 마리 羊의 목에 등불을 걸고 雙寨子 正門으로 몰았다. 寨의 正門을 지키던 寨丁들은 장헌충 군대가 공격해 오는 줄로 착각하고 後門의 병력도 불러 모았

다. 이를 틈타 後門을 돌파한 장헌충 군은 채를 점령하였다.⁵⁹⁾

扶君寨에는 奸細를 침투시키는 방식을 택했다. 채주가 紳糧員外라고만 언급된 雙寨子와는 대조적으로 扶君寨는 명에서 偏沅巡撫를 지낸 李乾德을 비롯하여 兩淮巡按 李完, 戶部右侍郎 李兆(三李) 등 西充縣 多扶場 李家灣 출신의 紳士들이 주축이 되었다.⁶⁰⁾ 이들은 ‘土豪惡棍’을 결집시키고 도처에서 병사와 말을 모아 이천여 명의 寨丁을 확보하여 장헌충 군대와 대결할 것을 염두에 두고 寨內에서 조련에 열중했다. 이런 扶君寨를 정면으로 공략하기는 무모하다고 판단한 때문인지 장헌충은 군대를 寨에서 십리 가량 떨어진 多扶場 金山浦에 주둔시켰다. 그리고 몰래 투항해온 西充縣衙의 班頭 鮮于紅을 奸細로 활용하였다. 장헌충은 우선 扶君寨를 고립시키고 외부의 식량보급을 차단시켰다. 그 후 건장한 부하 오륙십인을 골라 衙役으로 변장시키고 안개가 자욱이 낀 어느 날 저녁에 술과 닭, 오리, 물고기 등의 음식을 들려 鮮于紅과 함께 寨에 귀순하는 것으로 꾸몄다. 寨門에 다다른 鮮于紅은 縣衙 班頭인 자신이 요긴한 군사정보를 李尙書에게 알리러 왔다고 속였다. 寨主 李乾德이 문을 열어주라고 진갈하자 이들은 寨內로 진입하여 파수꾼을 죽였고 장헌충 군대는 채 안으로 잠입하여 매복했다. 鮮于紅은 李建德을 만나 장헌충 군대에 관한 거짓 정보를 흘린 후 술과 고기를 내놓았다. 三李와 휘하 군사는 모두 기뻐하며 잔치를 크게 벌이고 술과 고기를 먹고 만취해 쓰러졌다. 이 때를 틈타 장헌충 군대는 그들을 모두 포박하였다. 장헌충은 李完, 李兆를 베었으나 李乾德은 도주했다. 장헌충은 화근을 제거한다며 三李의 가족들을 도륙하였으나 빈궁민 출신의 寨丁에게는 路資를 주어 석방했다.⁶¹⁾

扶君寨의 공략은 이로써 마무리 되었지만 도륙당한 三李 親族의 반

59) 劉祥義 搜集, 「智破雙寨子」(『四川張獻忠傳説選』), pp.70-71.

60) 李完, 李兆 형제는 天啓2년에 함께 殿試에 합격하고 進士가 되었다. 李乾德은 崇禎4년에 진사가 되었다. 光緒『西充縣志』卷7, 選舉, 進士 5뒤-6앞. 전설에는 李乾德이 兵部尙書라고 했으나 이는 扶君寨 사건이 발생한 후 南明에서 받은 벼슬이어서 선후관계가 맞지 않아 승정연간의 직함인 偏沅巡撫로 수정하였다.

61) 張武德 搜集整理, 「智取扶君寨」(『四川張獻忠傳説選』), pp.245-247.

격도 만만치 않았다. 「鼓樓寨除奸」전설은 李乾德의 친족들이 모략을 써서 보복하려다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西充縣 出身의 進士 江鼎鎮은 대서정권의 예부상서로 鼓樓寨에서 軍糧과 馬草를 비축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그가 鼓樓寨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어느 날 寨民 王巧云은 강정진이 자신을 강간하고 아버지도 죽였다고 하며 寨內의 王氏들과 함께 鼓樓寨 門의 大順이라는 大西政權의 年號를 말뚝으로 칠해버렸다. 보고를 받은 장헌충이 軍營으로 당사자들을 소환하여 심문하니 王巧云은 李乾德의 먼 친족 侄女로서 王姓으로 바꾸어 채에 거주하였다. 李乾德이 도주한 후 그의 아들 李龍도 성과 이름을 바꾸어 王巧云의 집으로 숨어들었다. 이들과 王巧云의 부친은 강정진이 장헌충에 투항한 것을 복수하려고 모략을 꾸몄지만 발각되어 죽임을 당했다.⁶²⁾

西充縣 李家灣의 신사가문 이씨집안과 장헌충이 扶君寨, 鼓樓寨를 무대로 현실에서 펼친 대결은 장헌충의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전설에 따르면 西充縣 李家灣의 신사가문 이씨 집안의 장헌충에 대한 공격은 집요하게 代를 이어 계속되었다. 이번에는 장헌충에 대한 筆誅였다. 李映庚(李兆의 아들)이 장헌충의 칼날을 피해 살아남아 遂寧縣 출신의 明 大學士 呂文肅의 딸에게 장가들어 李昭治⁶³⁾를 낳았다. 李昭治는 강희연간에 『西充縣志』를 편찬할 때 장헌충이 선악을 불문하고 닦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고 닭이나 개조차도 살려두지 않았다고 기록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한다. 전설은 한편으로 李昭治의 관점에 대립했다는 또 다른 지식인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李昭治의 외가인 呂氏 가문의 후손 한 사람은 장헌충이 가난한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며 맞서다가 조정에 반항한다는 죄목으로 투옥되기조차 했다. 집안의 보살

62) 胡文學 搜集整理, 「鼓樓寨除奸」(『四川張獻忠傳說選』), pp.269-274.

63) 전설에는 그가 進士라 하였지만 光緒『西充縣志』卷7, 選舉志 進士 명단에는 그의 이름이 없다. 다만 光緒『西充縣志』卷14, 藝文에 그의 「鳳凰山誅張獻忠記」라는 문장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의 이력이 邑人으로만 소개되어 있다. 아마도 지방지 편찬 당시에 압력을 가했다는 이야기의 타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그를 進士로 언급한 듯하다.

핍으로 풀려난 그는 劇團을 조직하여 시골로 다니며 장헌충은 土豪惡棍만 죽인 좋은 사람이라는 내용의 唱劇을 공연했다고 한다.⁶⁴⁾ 이 전설은 청대 西充縣에서 장헌충의 행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상반되는 두 시각이 팽팽하게 대립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두 시각은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한 쪽은 문자기록으로 다른 한 쪽은 구전자료인 唱劇으로 각각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다.

扶君寨傳説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전설의 속성 이외에도 기억하기에 편리하도록 사실을 가공하는 전설의 또 다른 속성을 잘 드러내 준다. 扶君寨傳説은 세 가지 사실을 가공했다. 하나는 李完·李兆兄弟가 扶君寨에서 함께 장헌충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한 것이다. 李完은 서충현에서 장헌충 세력에 죽임을 당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당시 李兆는 戶部右侍郎을 제수 받은 후 요양하러 귀향하다 승정제의 자결 소식을 듣고 貴州 思南府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는 가족들이 몰살당한 2년 후 四川 西陽 龔灘에서 病死했다. 다만 그가 西充縣城을 補修하고 군대와 식량을 모으는 일에 기부한 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도 扶君寨 전설 속의 시간인 1646년 무렵이 아니라 장헌충이 처음으로 사천을 침공했던 1633년 무렵의 일이었다.⁶⁵⁾

다른 하나는 李完이 장헌충에게 살해당했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지방의 기록은 이와 다르다. 장헌충이 사천을 유린할 때 그가 홀로 충성스럽게 비분강개하여 건장한 남자들을 招募하여 훈련시키고 장차 群盜를 베어 國難을 종식시키려 했다. 마침 土賊 鮮于洪과 大西政權의 知縣 高凌雲이 이를 알아차리고 군대로 포위하여 갑자기 그를 체포하였다. 그는 의로움을 지키며 굴하지 않고 죽었다.⁶⁶⁾ 이 기록에 따르면 李完은 장헌충이 아니라 大西政權의 知縣 高凌雲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다. 高凌雲은 가난한 독서인으로 장헌충을 몇 년간 따라다니다 前任 知縣 陳于宸이 불법 행위로 해임되자 후임으로 임명된 자이다.⁶⁷⁾ 李完

64) 張武德 搜集整理, 「張獻忠“剿四川”的由來」(『四川張獻忠傳說選』), pp.340-341.

65) 光緒『西充縣志』卷8, 人物 上, 仕績, 11앞뒤.

66) 光緒『西充縣志』卷8, 人物 上, 忠烈, 8앞.

이 西充縣에서 군사를 모아 훈련하는 정황은 당연히 知縣에게 보고되었을 것인데 대서정권의 지방관인 高凌雲으로서는 장헌충에게 반기를 든 향촌자위집단의 우두머리인 李完을 제거한 조치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한 것이었다. 李完을 제거하는데 동참했던 鮮于洪은 지방지의 기록처럼 土賊이 아니라 지현을 보좌한 그의 행적으로 보아 縣内の 公務를 집행하는 衙役의 우두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張獻忠이 李完을 살해했다면 反 張獻忠情緒가 넘쳐흐르는 『西充縣志』에서 굳이 그의 살해 사실을 감출 이유가 없다.⁶⁸⁾ 嘉慶『四川通志』에서도 高凌雲과 鮮于洪을 李完의 살해자로 지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⁶⁹⁾ 『西充縣志』의 기록은 사실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이건덕이 扶君寨에서 장헌충에게 사로잡혔다가 도주했다는 내용도 사실과는 다르다. 아마 그의 행적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했을 康熙『西充縣志』는 이건덕이 湖廣의 蕪黃道로 발탁되었다 치적을 쌓아 偏沅巡撫가 되었는데 崇禎16년 장헌충의 군대가 공격하자 2만의 군사를 모아 城陵磯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으며 岳州城 공방전에서 3번이나 장헌충을 물리쳤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후 장헌충이 성도를 점령하자 원한을 풀려고 이건덕의 친족 100여명을 몰살시켰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건덕은 벼슬을 그만 두고 喪服을 입었다. 그 후 永曆政權에서 兵部尙書로 발탁되어 川南에서 활동하였다.⁷⁰⁾ 이 기록에 근거해 보면 이건덕은 친족들이 장헌충에게 몰살당할 때 현장에 없었다.

즉 扶君寨 전설은 扶君寨에서 활동한 적이 없던 이건덕과 李兆를

67) 杜延聰 搜集整理, 「巧破西充城」(『四川張獻忠傳說選』), pp.286-287.

68) 光緒『西充縣志』卷14, 藝文「鳳凰山誅張獻忠記」에는 정군이 습격하여 장헌충을 죽이고 군대가 케멸되자 서중인들이 그 살을 저며서 먹거나 피해를 당한 조상들에게 제사지내느라 순식간에 없어졌다고 기록했다.

69) 嘉慶『四川通志』卷155, 人物, 忠節, 31앞뒤.

70) 康熙『西充縣志』卷7. 이 내용은 西充縣縣志辦公室·西充縣文教局·西充縣地方志協會 編, 『張獻忠在西充』(1987), pp.117-118에서 재인용. 단 康熙『西充縣志』卷7의 이건덕 열전은 光緒『西充縣志』卷8, 人物 上, 忠烈, 8앞-10앞에 동일한 내용으로 재수록 되었다.

李完의 행적을 매개로 하여 扶君寨에서 활동한 것으로 꾸몄다. 그리고 李兆는 李完과 함께 扶君寨에서 장헌충에게 죽는 것으로 이견덕은 扶君寨를 탈출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꾸몄다. 그 이유는 이조는 병으로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하다가 이년 후에 사망했으므로 이완과 함께 죽는 것으로 가공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견덕은 1646년 이후에도 영력정권의 병부상서로서 사천 남부지역에서 농민군 두목인 袁韜·武大定을 투항시키고 또 그들을 사주하여 嘉定 일대에서 세력을 떨치던 명의 참장 출신 楊展을 제거하는 등 행적이 너무 뚜렷했다. 따라서 그도 扶君寨에서 장헌충의 손에 죽는 것으로 처리하면 장헌충 전설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진다. 따라서 그는 부득이하게 扶君寨를 탈출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꾸밀 수밖에 없었다. 扶君寨 전설은 그럴듯하지만 사실과는 다른 내용을 상당히 담고 있는 것이다.

扶君寨 전설은 실제와 실제가 아닌 것을 적당히 섞어서 장헌충과 서충현을 대표하는 신사가문인 李家灣 ‘三李霸王’과의 대결구도를 강조한 후, 장헌충이 서충현 아역의 도움을 받아 이들을 제거하고 민초들의 원한을 풀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寨에 근거를 둔 향촌자위집단과 장헌충 군대와와의 대립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扶君寨 전설이다.

그러나 吳三桂의 降淸과 청·오삼계 연합군이 山海關에서 李自成 군대를 격파하고 북경을 점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헌충의 입장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고 전설은 전한다. 자신보다 역량이 강한 이자성의 군대를 청군이 격파했다면 자기 휘하의 군대만으로는 청군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간과했다. 이에 장헌충은 여러 세력들과 연합하여 抗淸투쟁에 나서야 할 필요를 절감하여 鹿角山寨를 방문했다고 「鹿角山寨弄險」전설은 전한다.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부하 李定國을 特使로 자신은 副使로 변장하고 다섯 명의 호위무사와 함께 갔다.

俠義堂이란 편액이 걸린 寨의 중심 건물로 안내받은 特使와 副使 일행이 一致抗淸을 설득하자 寨主 伍化平은 이렇게 대답했다. “나도 炎黃子孫이고 열혈남아로서 外族이 침입하여 우리의 父老와 鄉親을 마

구 짓밟는 것을 어찌 용인할 수 있겠는가? 만일 八大王(=장헌충)이 우리와 연합하여 抗淸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淸賊을 몰아내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팔대왕이 멀리 成都에 있으니 盟約하는 일은 훗날로 미룰 수 밖에 없다.” 副使가 자신이 장헌충이라고 밝히자 寨主 伍化平은 다음날 寨의 兄弟들을 모두 모아 맹약체결 의식을 거행하기로 했다.

이 소식을 들은 寨主의 婦人是 친정 남동생을 불러 실패하면 鹿角山寨 衆家兄弟의 목숨이 온전치 못할 것이라며 걱정을 털어 놓았다. 그러자 남동생도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며 몰래 장헌충을 죽이기로 모의했다. 寨主 婦人의 하인이 음모를 꾸밈해 주자 장헌충 일행은 한밤중에 허겁지겁 출행랑 쳤다. 추격자들의 칼날에 호위무사가 네 명이나 목숨을 잃었고 나머지 일행은 절벽으로 내몰렸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바람이 세차게 불어 큰 나무의 가지가 휘어져 건너편 절벽에 닿았다. 장헌충과 이정국은 나뭇가지를 밟고 절벽을 건넜다. 그 후 바람은 멎었고 추격자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다.⁷¹⁾

張獻忠은 왜 一致抗淸을 추진하는 협력자로서 鹿角山寨를 택했을까? 요충지라는 이유 때문 만이라면 鹿角山이나 주변에 흩어진 수많은 다른 山寨를 방문할 수도 있었다. 소수의 호위무사만을 거느리고 (결과적으로는 목숨을 잃은 뻔한) 위험을 무릅쓴 채 찾아갈 만큼 독특한 매력이 鹿角山寨에 있었다. 그 까닭은 鹿角山寨가 綠林의 무리로 결성되었기 때문이다. 鹿角山寨에서는 寨 구성원을 생사를 같이하는 兄弟로 불렀다. 寨의 중심건물은 俠義堂으로 불렀다. 이것은 梁山泊의 忠義堂을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 중요한 것은 寨主 伍化平이 호랑이 등과 곰의 허리를 가진 기운이 남다른 ‘綠林好漢’이었다는 점이다. 즉 鹿角山寨는 綠林의 兄弟들이 결성한 自衛集團이었다. 이들과 장헌충 군대와는 의기투합하는 면이 있다고 보아 전설은 장헌충이 직접 방문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꾸민 것 같다. 기대한 대로 ‘綠林好漢’인 寨主

71) 段緒淸 搜集整理, 「鹿角山弄險」(『四川張獻忠傳說選』), pp.193-201.

伍化平이 혼쾌하게 一致抗淸에 찬동했다.

그러나 寨의 자위집단이 추구하는 궁극 목표가 自衛를 통한 生命과 財産의 보호라는 점은 주도자가 紳士·地主이든 綠林好漢이든 동일하다. 寨主婦人과 남동생은 寨의 이런 속성을 대표하는 세력들이다. 즉 天下를 圖謀하는 張獻忠 集團과 自衛를 圖謀하는 寨는 서로 지향하는 바가 현격하게 달랐다. 따라서 양자가 一致抗淸의 기치 하에 단합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고 鹿角山寨 형제들에게 장헌충은 자신들을 멸망으로 내몰 수 있는 위험천만한 존재로 비친 것이다. 「鹿角山弄險」전설은 綠林的 무리가 결성한 寨가 신사나 지주가 주도한 寨와는 다른 이유 때문에 張獻忠과 대립했던 경위를 자세하게 드러내 준다.

한편, 전설에 등장하는 寨 중에는 장헌충이 아니라 明의 官府와 대립한 것도 있었다. 重慶府 永川縣 靑龍山の 靑龍山寨가 그러했다. 唐氏姓의 擧人이 招募하여 조련한 鄉勇 400여명으로 구성된 靑龍山寨는 주변 80여리의 峽를 장악하고 官府와 대립했다. 唐 擧人의 독립왕국이 된 靑龍寨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 반면 官府는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靑龍寨를 눈에 가시처럼 여겼다. 단오절에 縣城에서 龍舟 경기를 하리라는 소식을 접한 唐 寨主는 “현성을 공격하여 貪官을 懲治할 때가 왔다”며 5월 4일 밤 승리를 자축하는 잔치를 미리 열었다. 모두 술에 취해 잠든 한밤중 누군가가 채에 불을 지르고 사람을 죽였다. 아침에 보니 시체가 겹겹이 쌓이고 피가 낭자했다. 寨의 東門에 ‘八大王過此’라는 글자가 크게 씌어 있었다. 명군이 靑龍寨를 습격해 사람을 죽이고 장헌충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었다.⁷²⁾

이처럼 明軍이 寨를 습격하고 장헌충에게 누명을 씌운 이야기는 전설에서만 언급되지만 명말청초 明軍과 명의 峽軍이 사천 도처에서 약탈, 살인, 방화를 저지른 사실을⁷³⁾ 상기하면 이것이 역사적 실제와 부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러나 紳士는 평상시 지방관을 보좌하

72) 王瑞豪 搜集整理, 「智斗楊嗣昌」(『四川張獻忠傳説選』), pp.116-119.

73) 王綱, 「論明末淸初四川人口大量減少的原因」(『張獻忠在四川』), pp.68-69.

는 역할 수행했고 동란기에는 자위집단을 결성했지만 保身家가 목적이었다. 따라서 이들이 실제로 寨의 무력을 동원하여 위협을 무릅쓴 漵官府를 습격하고 貪官을 懲治하는 일에 나설 수 있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靑龍寨 전설은 동란기에 彼我를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질서가 붕괴되었고 그 가운데서 자위를 도모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던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상으로 전설에 투영된 명말청초 사천사회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전설은 ‘가짜’를 내세워 적군에 타격을 가하거나 奸細나 計巧를 활용하여 寨를 공격하는 등의 양상을 소개함으로써 문헌자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동란기 사천사회의 생생한 모습을 전하고 있다. 한편으로 장헌충 전설 역시 다른 전설들과 같이 민초들이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되 사실에 구애되지 않고 이를 적당히 가공하여 이야기의 재미와 극적 요소를 강화시킨 점도 확인하였다. 역사학연구 자료로서 전설이 가지는 한계성이 장헌충 전설에서도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전설은 한결같이 장헌충 세력 대 반 장헌충 세력의 대결구도라는 관점에서 명말청초 동란기의 사천사회를 전하고 있다. 그리고 반 장헌충 세력의 중추인 명의 관료와 군대는 부패하고 지주와 신사는 민초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惡한 무리라는 낙인을 찍고 있다. 이는 문헌자료에서 전하는 장헌충 세력은 惡이고 반 장헌충 세력은 善이라는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삶을 위협받는다 고 느낀 民草들이 악한 세력을 소탕하고 자신들을 구해줄 ‘정의로운 구원자’의 출현을 기대하는 전설을 만들고 유포시킨 것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IV. 傳說속의 張憲忠 像

전설은 그 ‘정의로운 구원자’가 장헌충이라고 전한다. 民草들은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 그의 출생, 성장, 사망과 관련된 전설을 만들었다. 출생 전설은 장헌충이 장차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를 예견하게 해주고, 성장 전설은 출생 시의 기대가 어떻게 구체화하는지 보여주며, 사망 전설은 삶이 어떻게 마무리 되는지 알려준다. 이런 연속성을 감안한다면 출생, 성장, 사망으로 구성된 생애 전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출생 전설이다. 장헌충이 어떤 인물인가를 암시하는 출생 전설이야말로 그의 삶을 이해하려할 때 그 방향을 알려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장헌충의 출생 전설 두 편은 그가 天命을 받고 출생한 인물임을 알려준다. 西充縣에 유포된 출생전설에 따르면 장헌충은 玉皇大帝가 천하 대란 시에 재난과 고통이 가장 심할 四川 사람들을 위해 懲惡揚善, 打富濟貧하라고 세상으로 귀양 보낸 燕子星이었다. 그러나 이 전설은 사천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줄 인물이 陝西에서 태어나는 지역적 괴리 현상을 내포한다. 이에 대해 전설은 南海觀音聖母가 陝西省 延安府 膚施縣 柳樹間的 土地神이 올린 보고에 근거하여 착한 사람이 많은 燕子岩의 가난한 백성인 張文興의 아내가 곧 해산하려 하니 거기로 보내 天命을 완수케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상주했고 옥황대제는 이를 운허했다고 해명한다. 선량한 사람이 많고 해산이 임박한 부녀가 있었으므로 장헌충이 섬서성에서 태어났다는 이 해명도 궁색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사천에도 두 가지 요건을 갖춘 지역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⁷⁴⁾

이런 논리상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전설은 논리를 초월하는 신앙의 세계를 끌어들었다. 사천인들에게 익숙한 道敎의 신격인 옥황대제, 불교적 신앙관을 대변하는 남해관음성모, 민간신앙의 말단 영역에서 지역의 세세한 사정을 살피는 토지신이라는 세 신격을 동원하여 전설의 타당성을 강화하고 있다.⁷⁵⁾ 특히 옥황대제는 天下의 人間事를 관장

74) 張武德 搜集整理, 「燕子星下凡」(『四川張獻忠傳說選』), pp.1-3.

75) 玉皇大帝는 道敎信者였던 宋 眞宗皇帝(998-1022)의 치세에 중국 民間信仰의 최고 神格으로 등장하였다. 人間界를 감찰하는 모든 神들의 상소문은 최종적으

하므로 그의 다스림을 받는 인간이 설정한 지역적 경계는 무의미하다는 점을 전설은 암시한다.

장헌충이라는 이름도 하늘에서 내렸다고 簡州의 전설은 전한다. 장헌충이 태어나자 하늘에서 뇌성이 울리고 벼락이 치면서 장헌충이라는 이름을 적은 종이가 그의 집 앞을 지나가던 和尚에게 떨어졌고 화상은 그의 부친에게 전해주었다는 것이다. 화상은 이름을 건네주며 “이 아이는 하늘의 별자리(星宿)가 下凡한 것으로 자라서 능히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오로지 貪官土豪만을 죽일 것이오.”라고 말하고 사라졌다.⁷⁶⁾

이처럼 出生 전설 두 편은 장헌충이 懲惡揚善, 打富濟貧하라는天命을 받고 태어난 비범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成長 전설에서는 특이한 면모를 그다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어릴 때 글을 배우면서 스승의 말은 귀담아 듣지 않았거나, 또래들을 모아 무술을 익히고 싸움을 좋아했다거나, 지주의 아이를 때려 서당에서 쫓겨났다가, 아버지와 사천에서 대추장사를 했다거나, 장사치를 따라 사천을 떠돌았다는 전설이 주류를 이룬다.⁷⁷⁾ 다만 부모를 잃은 장헌충이 西充縣의 부자 廖氏 집 목동으로 일할 때 어느 관상가가 그를 보고 천자가 될 상이라며 절했다는 전설⁷⁸⁾, 어릴 적에 동무들과 ‘황제계 절

로 옥황대제에게 보내진다. 남해관음은 인도에서부터 전래된 불교의 신격으로 여기서는 아이를 가져다준다는 送子觀音의 역할을 하고 있다. 불교의 신격인 남해관음이 도교의 신격인 옥황대제의 통솔을 받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道教와 佛教의 結合現象을 반영한 것이다. 土地神은 옥황대제의 지휘를 따르는 도교의 신격이다. 石井昌子, 「道教의 神」(酒井忠夫 外 지음, 崔俊植 옮김, 『道教란 무엇인가』, 민족사, 1990), pp.138-139, 143; 趙毅·王彥輝, 「土地神崇拜與道教的形成」(『學習與探索』 2000-1, 總第126期), p.130; 貝逸文, 「論普陀山南海觀音之形性」(『浙江海洋學院學報(人文科學版)』 20-3, 2003), p.27.

76) 謝榮才 搜集整理, 「張獻忠出世」(『四川張獻忠傳說選』), pp.4-5.

77) 黃亮 搜集整理, 「讀書斬蛟」(『四川張獻忠傳說選』), pp.8-9; 張江波 搜集整理, 「父子進川」(『四川張獻忠傳說選』), pp.10-12; 王漢文·仇甫金 搜集整理, 「夜宿十字坡」(『四川張獻忠傳說選』), pp.13-16; 王瑞豪 搜集整理, 「虎娃怒打宵毛猴」(『四川張獻忠傳說選』), pp.17-18.

78) 杜孝璋 搜集, 「天子相」(『四川張獻忠傳說選』), pp.24-25.

하기' 놀이를 할 때 친구들이 '寶座' 오르면 모두 넘어졌지만 장헌충만은 자리에 앉아서 절을 받았다는 전설⁷⁹⁾ 정도가 있을 뿐이다. 또 장헌충이 어린 시절 懲惡揚善, 打富濟貧이라는 자신의 천명을 자각하는 전설도 전혀 없다. 다만 사친에서 아버지나 장사치를 따라다닐 때 모욕을 당하며 훗날 복수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정도가 천명의 자각과 관련시킬 수 있는 전설이다.

이처럼 장헌충 전설은 천명을 부여받은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출생 전설과는 달리 성장 전설에서는 天命을 자각하는 내용이 없어 전설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하지만 이 점이야말로 장헌충 전설이 수많은 민초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사실을 웅변한다. 구도가 잘 짜여진 소설이 한 두 사람의 붓끝에서 창작되는 것과는 탄생 과정이 전혀 다르다.

장헌충의 활동전설은 그가 옥황대제로부터 부여받은 懲惡揚善, 打富濟貧이라는 天命을 수행하는 양상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다. 첫 번째 天命인 懲惡揚善은 惡人을 징계하고 善人을 격려하는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그런 대표적 전설은 장헌충이 岳池縣에서 無賴 馬長脚을 제거하고 善人 王四를 위기에서 구해주었다는 전설이다. 王四는 원래 岳池縣의 부자 王員外의 아들이었다. 王四가 열 살 되던 해 아버지는 외지 출신으로 오갈 데 없는 馬長脚을 雜工으로 거두어 들였다. 무예를 익힌 적이 있는 馬長脚은 아버지의 신임을 얻어 管家가 되었다. 그는 王員外와 빚을 받으러 나갔다가 절벽에서 그를 밀어 죽이고는 미끄러져 죽었다고 속였다. 후에 王員外의 아내에게 억지로 장가들어 독을 넣은 배(梨)를 먹여 죽이고는 官府에 뇌물을 주고 배장수에게 살인누명을 씌워 죽였다. 그리고 王四의 繼父 노릇을 하며 헐박하여 재산을 절반씩 나누기로 약속한 후 王四를 죽일 기회를 호시탐탐 노렸다. 王四는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논밭을 가는 소(耕牛)를 죽이지 말라는 大西政權의 禁令을 고의로 범했다. 잡혀온 王四는 장헌충에게 자초

79) 魏福壽 搜集, 「童年張獻忠」(『四川張獻忠傳説選』), pp.6-7.

지중을 고했다. 장헌충은 馬長脚을 잡아와 王四와 ‘一切’를 절반씩 나누기로 했는지 물었다. 馬長脚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장헌충은 王四가 논밭을 가는 소를 죽인 죄에 대한 처벌도 절반씩 나누다며 각각 重柵 50板과 苦役 10년의 형벌을 내렸다. 그리고 繼父인 馬長脚을 먼저 처벌하여 重柵 50板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 몇 달이 지나자 馬長脚은 옥사했다. 王四는 장헌충에게 간청하여 大西軍에 참가했다.⁸⁰⁾ 事故死를 가장한 살인, 남의 아내를 강제로 차지하기, 독살 후 타인에게 누명 씌우기, 관부와의 결탁으로 재판 결과를 유리하게 조작하기, 재산 강탈과 협박 따위의 범죄를 저지른 馬長脚은 전형적인 無賴이다.⁸¹⁾ 무뢰들의 범죄행위를 하나도 빠짐없이 열거해 놓은 듯한 馬長脚의 행동은 명말청초 岳池縣이 무법천지나 다름없는 사회로 변했다는 사실을 웅변한다.

장헌충은 부정과 불법이 횡행하는 악지현 사회에서 악인을 제거했다. 동시에 악인에게 부모와 재산을 잃었을 뿐 아니라 생명조차 위협받는 억울한 약자(=善人)를 구원했다. 그런데 惡人 제거와 善人 구원은 재판이라는 제도와 절차를 통해서 수행하고 있다. 이는 명조를 중심으로 하던 구래의 질서가 붕괴된 악지현 사회에서 대서정권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질서가 구축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두 번째 天命인 打富濟貧 전설은 사천 각지에 유포되어 있으며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大巴山の 土豪 郝富者를 징벌하고 그의 재산을 빼앗아 백성들에게 나눠준 전설이다. 장헌충이 大巴山 기슭에 주둔할 때 部將들을 거느리고 소금장수로 변장하여 백성들의 사정을 살폈다. 이 지방에 郝씨 성의 큰 부자가 있었다. 그는 明 兵部尙書 熊文燦의 심복으로 여러 縣에 걸쳐 토지를 집적하고 소작인에게서 고액의 소작료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해마다

80) 金靑禾 搜集整理, 「路遇奇案」(『四川張獻忠傳說選』), pp.157-162.

81) 명청시대 無賴의 출현 배경과 존재양상, 계층적 성격에 관한 종합적 연구로는 吳金成, 『國法과 社會慣行 -明清時代社會經濟史研究-』(知識産業社, 2007), 제3편 제2장 「黑社會의 主人:無賴」, pp.353-404 참조.

가족들의 생일이 되면 선물을 바치라고 독촉하였다. 郝부자는 생일에 山海珍味를 먹는 모습을 저택 大廳에 달아놓은 큰 거울에 비치게 했다. 선물을 바치러 온 가난한 농민들에게는 거울에 비치는 대로 음식 먹는 시늉을 내라며 괴롭혔다. 잔치가 과한 후 장사치로 변장한 장헌충은 달(月)을 판다며 郝부자와 만나 물통에 든 달을 사라고 수작을 부렸다. 郝부자가 미친놈이라며 욕하자 장헌충은 백성의 기름을 짜는 자는 처벌받아야한다며 囚籠에 가두고 목에 칼을 씌웠다. 그 자리에 있던 농민들은 손뼉을 치며 환호했다. 장헌충은 郝부자의 土地와 財物은 모두 백성의 기름을 짠 것이라며 가난한 백성에게 나눠주었다.⁸²⁾

그러나 장헌충의 天命 수행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악인들의 계략에 휘말려 목숨을 위협받거나 요사스런 용의 방해를 받거나 적군의 공세를 막지 못해 패배하는 등 다양한 고초를 겪는다. 전설에서는 그 때마다 자연이나 異人, 玉皇大帝 도움을 받아 곤경에서 벗어나고 임무를 완수했다고 전한다. 앞서 언급한 바처럼 鹿角山寨를 찾아간 장헌충이 寨主 부인과 처남이 보낸 자객들에게 쫓기자 바람이 거세게 불어 나뭇가지를 휘게 하고 장헌충으로 하여금 가지를 밟고 맞은편 절벽으로 도망가게 한 사례, 西充縣 九嶺山에서 행군할 때 요사스런 용이 요기를 내뿜으며 방해하자 꿈속에서 백발노인이 용을 퇴치하라며 장헌충에게 보검과 신비로운 부채를 건네 준 사례,⁸³⁾ 明軍에 패해 사천 동북부 黃龍山으로 이동하던 장헌충에게 옥황대제의 명을 받은 黃龍大仙이 黃龍이 솟구치는 꿈을 꾸게 하여 사기를 진작시켜 土豪와 ‘惡霸’들의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백성에게 나눠주게 한 사례 ⁸⁴⁾ 등이 그러한 예이다. 天佑神助는 장헌충이 天命을 받은 인물임을 재차 확인시켜 준다.

장헌충의 일생과 활동 전설에서 드러난 그의 이미지들은 서로 논리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된다. 즉 張獻忠은 옥황대제가 파견한 使者로서

82) 段緒淸 搜集整理, 「賣月亮」(『四川張獻忠傳說選』), pp.80-83.

83) 何興澤 搜集整理, 「劈浪斬妖」(『四川張獻忠傳說選』), pp.253-254.

84) 張武德 搜集整理, 「黃龍搖天動」(『四川張獻忠傳說選』), pp.77-79.

땅에서 하늘을 대신하여 懲惡揚善, 打富濟貧의 天命을 수행하는 替天行道의 구현자이다. 替天行道의 과정에서 희생되는 자들은 평소 民草를 괴롭히던 惡人들이므로 장헌충이 이들을 죽이는 것은 정의를 실현하는 행위이다. 관료나 신사, 지주와 같은 지배층이 기록한 문헌자료에서 도살자로 낙인찍힌 張獻忠이 민간전설 속에서는 오히려 替天行道의 具現者로 부활하였다. 이런 관점은 도둑 무리가 群雄으로 활약하면서 ‘救困扶危’, ‘殺富濟貧’하여 替天行道 한다는『水滸傳』의 세계관⁸⁵⁾ 계보를 이은 것이다.⁸⁶⁾

그런데 장헌충이 옥황대제로부터 부여받은 天命(懲惡揚善, 打富濟貧)은 社會惡과 惡人의 非理를 척결하기 위해 힘을 앞세우는 霸道的 속성이 강했다. 반면 民心을 收拾하고 달래는 王道的 속성은 미약했다. 장헌충 전설 속에는 李自成이 농민들에게 선전하여 민심수습 수단으로 활용했던 均田免糧의 구호가 미미하게 나타날 뿐이다. 장헌충이 호광에서 정권을 수립했을 때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런 구호를 선전했다. 사천의 전설에서는 南充縣,⁸⁷⁾ 西充縣⁸⁸⁾같은 사천북부 일부 지역에서만 錢糧免徵의 구호를 내건 것이 확인될 뿐이다. 사천에서는 장헌충 집단의 王道的 속성이 퇴색하고 霸道的 속성이 강화되었던 것이다.

秦帝國이나 項羽처럼 霸道を 추구한 왕조나 인물은 단명한 것이 역사적 현실이었다. 大西政權이나 張憲忠도 예외가 아니었다. 1644년 四

85) 李相雨, 「“替天行道”의思想與俠義小說」(『中國語文學論集』 23, 2003, pp.448-449.

86) 실제로『水滸傳』은 명말의 서민과 농민반란집단에 큰 영향을 주었다. 당시 서민들은 수호의 책을 읽고 연극을 보며 그림을 그리고 도박기구에 수호전의 등장인물을 그려 사용할 정도였다. 반란군 수령들 사이에는 자신들의 별명을 수호전 등장인물들의 이름에서 그대로 따오거나 한두 글자를 고쳐 사용하는 것이 유행하였다. 또 36天罡星과 72地煞星을 모방하여 반란군을 36營, 72營으로 조직하기도 하였다. 서민들과 농민반란군에 대한『水滸傳』의 영향력이 커지자 明朝는 崇禎15년 전국적인 차원에서 『水滸傳』을 禁毀했다. 崔晶妍, 「『水滸傳』의 歷史的 理解」(『서울대동양사학과논집』 12, 1988), pp.24-25.

87) 彭朝斌 搜集整理, 「智籌軍餉」(『四川張獻忠傳說選』), p.239.

88) 李仲華 搜集整理, 「朝拜將軍廟」(『四川張獻忠傳說選』), p.287.

川 成都에 수립된 대서정권은 이동하면서 약탈을 일삼는 流寇의 행태를 극복하지 못한 점, 六部를 비롯한 관료기구를 통한 정상적인 지배를 수행하지 못한 점, 지배계층인 신사나 지주층의 민심을 수습하는데 실패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3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붕괴되었다. 전설에서는 단명한 이유를 대서정권의 약점에서 찾기보다는 장헌충이 得勝岩이라는 바위를 寶刀로 내려칠 때 칼을 잃어버렸다가, 89) 南充·岳池·蓬安 三縣 交界에 위치한 金城湯池인 金城山에 도읍을 정하려 산봉우리 100개를 헤아리다 마지막 1개를 찾지 못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며 90) 장헌충의 운명과 연관지어 상징적으로 설명한다.

대서정권의 단명은 장헌충이 천명을 완수했으므로 옥황대제가 하늘로 그를 불러올렸다는 해피엔딩 전설이 만들어지는 것을 차단했다. 장헌충은 1646년(順治3년, 大西大順3년) 12월 西充縣 鳳凰山에서 肅親往 호거(豪格)가 거느린 청군의 기습을 받아 40세의 나이에 전사하였다. 농민반란군의 다른 지도자 李自成的 죽음에 대해서는 청실록에서는 湖北省 通山縣 九宮山에서 무장자위집단에게 피살되었다고 하며, 호남성 일대에서 떠도는 전설에서는 湖南省 石門縣 夾山寺에서 奉天玉和尚으로 변장하여 천수를 누렸다는 상반된 내용이 병존하고 있다. 91) 이와는 달리 장헌충은 서충현 봉황산에서 전사했다고 청실록이나 그밖의 문헌 자료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장헌충의 사망전설도 그가 서충현 봉황산에서 청군과 전투 중에 사망한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92)

그러나 장헌충은 사망한 후에도 민초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

89) 廖正禮 搜集整理, 「寶刀之謎」(『四川張獻忠傳說選』), pp.74-75.

90) 鄧如意 搜集整理, 「南金門與南京門」(『四川張獻忠傳說選』), pp.103-106.

91) 李自成的 사망지를 둘러싼 중국학계의 서로 다른 견해의 내용과 학설 대립의 밑바탕에 깔린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간략한 지적으로는 李俊甲, 「第8屆明史國際學術討論會參加記」(『明清史研究』 12, 2000), pp.191-192.

92) 張武德 搜集整理, 「張憲忠之死」(『四川張獻忠傳說選』), pp.325-326. 民草들은 아끼는 인물의 죽음에 얼마간의 모호함이 개재되어 있다면 전설을 통해 살려놓는 경우가 드물지 않지만 장헌충의 죽음은 시간과 장소가 매우 분명했기 때문에 전설에서조차 되살릴 수 없었던 것 같다.

왔다. 民草들은 그의 영혼이 戰場에 나타나 청군에 투항하여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배신자 劉進忠과 吳之茂와 자신에게 활을 쏜 청군 장수를 죽여 復讐하거나,⁹³⁾ 燕子星으로 하늘로 귀환한 한 후 자신의 무덤을 도굴하는 도적을 이무기를 보내 삼키게 했다는 전설을 만들어 그를 기억했다.⁹⁴⁾ 또한 봉황산에 있는 그의 무덤에 한줌 흙을 보태거나 돌을 올려놓아 추모했다.⁹⁵⁾

장헌충을 향한 民草들의 추모는 梓潼縣 七曲山 太廟 안 風洞樓에 綠袍金身(臉)의 塑像을 세워 분향하고 제사한 행위에서 절정에 달한다. 梓潼縣 民草들은 왜 장헌충의 塑像을 세우고 제사 지냈을까? 근본적인 이유는 장헌충이 懲惡揚善, 打富濟貧이라는 天命을 수행하는 替天行道의 구현자로서 民草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사천 다른 지역에서도 替天行道를 빈번하게 행한 장헌충이 유독 梓潼縣에서만 특별한 기림을 받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보다 구체적인 원인으로서는 재동현과 장헌충의 특별한 관계를 지적할 수 있다. 명말 당시 재동현 칠곡산에는 張亞子를 모시는 文昌廟가 있었다.⁹⁶⁾ 1644년 겨울 재동현 太廟(청대에 大廟로 개칭)에 들린 장헌충은 正殿인 文昌廟와 누각들을 수리하고 關聖廟를 창건하라며 거액의 수리비용을 기부하고 다수의 일꾼을 징발해주었다.⁹⁷⁾ 전설에 따르면 장헌충은 이 때 문창묘에 모셔진 張亞子の 상에 분향하면서 ‘당신의

93) 崔渭陽 搜集整理, 「濫泥溝西王顯靈」(『四川張獻忠傳說選』), p.330.

94) 張武德 搜集整理, 「西王墳」(『四川張獻忠傳說選』), pp.336-337.

95) 杜孝璋 搜集整理, 「投石掃墓」(『四川張獻忠傳說選』), pp.338-339.

96) 사천인 장아자(=張育)는 東晉 寧康2년(374)에 前秦 苻堅의 군대에 맞서 싸우며 蜀王을 칭하고 연호를 黑龍이라했으나 전사했다. 사천인들은 이민족에 맞서 싸운 그를 梓潼神으로 모시고 사당을 세워 추모했다. 영험함이 뛰어나 唐代에 濟順王, 宋代에 英顯王으로 봉해졌다. 元 仁宗 延佑三年(1316)에 ‘輔元開化文昌司祿宏仁帝君’으로 봉해지면서 梓潼神이었던 張亞子가 드디어 文昌帝君으로 불리게 되었다. 과거제도의 발달과 더불어 송대이래 명청시대에는 과거의 신으로 전국적으로 숭배되었다. 張澤洪, 「論道教的文昌帝君」(『中國文化研究』, 6, 2005), pp.1-9.

97) 謝漢杰, 劉長榮, 「張憲忠家廟史迹探踪」(『張憲忠在梓潼』), pp.9-10.

성도 張이고 나의 성도 張이니 우리 한 가족처럼 지냅니다.’라고 외치고는 太廟를 張氏의 家廟로 삼는다고 선언했다. 또 태묘 유지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납세가 면제된 토지 100畝를 주고 태묘를 지켜오던 司香戶도 그대로 인정해 주었다.⁹⁸⁾ 장헌충은 문창묘를 포함한 태묘를 수리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자신의 家廟로 삼음으로써 좁게는 혈연 의식을 자극하여 梓潼縣 張氏들(咸豐『梓潼縣志』에 따르면 梓潼縣 張氏들은 청대에 貢生을 네 사람이나 배출한 梓潼縣의 유력한 성씨이다)로부터 지지를 얻고 넓게는 梓潼縣 民草들의 지원을 얻을 수 있었다. 梓潼縣 民草들이 대서정권의 군사가 되어 청군과 사흘밤낮을 싸우거나 객지에서 병사로 활동한 것은 張憲忠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들은 장헌충이 전사하자 곧 풍동루에 塑像을 세우고 분향했다. 매년 2월과 8월에는 張憲忠과 대서정권의 군대가 梓潼縣에 온 날을 기념하여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太廟로 가서 張憲忠에게 제사를 지냈다고 전설은 이야기한다.⁹⁹⁾

그러나 2월과 8월의 제사는 장헌충에게만 드려진 것이 아니었다. 明萬曆年間부터 梓潼縣 太廟에서는 매년 2월 1일부터 15일, 8월 1일부터 15일까지 두 차례 廟會가 성대하게 치러졌다. 廟會의 원래 목적은 文昌帝君에게 祭祀하고 拜香하는 것이었지만 그 외에 수많은 民草와 신사와 지주 등이 어우러져 太廟를 구경하고 연극, 곡예, 잡기 등의 오락을 즐기고 다양한 상품을 매매하는 민간의 축제가 펼쳐졌다.¹⁰⁰⁾ 廟會에서 張憲忠은 梓潼縣 民草들에게서 文昌帝君이나 關帝와 함께 제사를 받는 神格으로 떠받들어졌다. 知識人들은 文昌帝君에게 科擧 합격을, 士農工商은 모두 關帝에게 財物 福 내려주기를 기원했지만 民草들은 張憲忠 塑像에게 삶의 고통과 억울함을 하소연했을 것이다. 그것이 民草들에게서 懲惡揚善, 打富濟貧하는 替天行道의 具現者라고 받아들여진 張憲忠의 이미지에 가장 어울리는 호소이기 때문이다.

98) 謝煥智 搜集整理, 「聯宗認祖」(『四川張獻忠傳說選』), pp.181-182.

99) 敬永全 搜集整理, 「張憲忠立太廟」(『四川張獻忠傳說選』), pp.177-179.

100) 張澤洪, 「論道教的文昌帝君」(『中國文化研究』 6, 2005), p.9.

훗날 건륭6년(1741) 張憲忠 塑像을 훼손한 綿竹縣 知縣 安洪德은 ‘綠袍金臉에 사납고 독살스러우며 잔인한 형상을 보니 神과 매우 달라 賊像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고 비난했다.¹⁰¹⁾ 과거합격과 재물처럼 분향자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을 내려주는 文昌帝君이나 關帝는 없는 것을 채워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신이다. 반면 張憲忠 塑像은 民草들의 고통과 억울함을 풀기 위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꾸짖는 신이다. 처벌과 징계하는 神의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여타의 神像과는 달리 사납고 독살스러우며 잔인한 형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역설적이지만 安洪德의 비난을 통해 民草들이 張憲忠 塑像에 기대한 바가 무엇이었던지 재차 확인할 수 있다.

梓潼縣 民草들의 추모 열기 속에서 神格化한 張憲忠 塑像은 백년 가량이 지난 후 격분한 사천 지방관과 신사들에 의해 파괴되었다. 乾隆6년 綿竹縣 知縣 安洪德이 張憲忠 塑像을 훼손하던 당시의 정황을 三台縣의 進士 王程焄은 「毀張獻忠遺像記」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았다.

명말에 梓潼縣 사람들은 逆賊 張獻忠의 협박을 두려워하여 風洞樓에 像을 세우고 제사를 그치지 않았다. 綿竹縣의 현명한 지현 安公[=安洪德:필자]이 梓潼縣으로 가던 도중에 역적의 상을 보고 욕을 퍼부었다. “이것은 개돼지조차 먹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도 오히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神으로 모시고 있다. 역적이 어찌 이처럼 (대접) 받을 수 있는가?” 좌우에 명하여 (塑像을) 찢어서(磔) 길에 널어놓게 했다. 오호라! 역적이 범망을 벗어난 지가 거의 백년이나 되었다. (역적의) 神位를 몰래 세우고 멋대로 제사지냈는데 愚夫愚婦들이 빌고 제사지내면서 놀라 식은땀을 흘리고 희생과 술을 깨끗하게 하여 제수를 바치는 것이 우리 安公의 浩氣에 거슬러 그가 (塑像의) 皮膚를 부수고 뇌를 꺼내었으니 곧 지난날에 대해서는 흉악한 자를 끊어서 없앤 것이요 장래에 대해서는 경계함을 보인 것이다.¹⁰²⁾

101) 安洪德, 「除毀賊像碑記」(『張憲忠在梓潼』), p.14.

102) 王程焄, 「毀張獻忠遺像記」(民國『三台縣志』 권22), 34뒤-35앞. 「毀張獻忠遺像記」는 咸豐『重修梓潼縣志』 권5, 藝文, 14뒤 및 同治『直隸綿州志』 권49, 75뒤-76앞에도 수록되어 있다. 이 글이 천북 일대의 지방지에 많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지방지 편찬자인 신사층의 공감을 두루 얻었음을 알 수 있다. 세

이 문장에서 장헌충의 塑像을 부순 행위를 毀, 破와 같은 허무는 동작만을 의미하는 용어가 아니라 죄인의 지체를 찢어서 棄市하는 형벌인 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묘사한 것은 筆誅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부순 塑像의 사지를 길에 널어놓은 행위도 죄인의 시신을 棄市한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사천의 지방관이나 신사층은 逆賊 장헌충이 사후 백년이 되어도 청조에서 공인한 文昌帝君과 關帝가 함께 모셔진 太廟(大廟)의 한 공간에서 버젓이 神으로 모셔지는 것을 분노했다.

그러면 太廟가 위치한 梓潼縣의 知縣과 紳士들은 백 년 동안이나 梓潼縣에 張憲忠 塑像이 있는 것을 몰랐을까? 張憲忠 塑像 파괴의 주역이었던 安洪德이 塑像이 있던 風洞樓에 세운「除毀賊像碑記」를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다.

梓潼의 文昌(帝君)은 충효(를 관장하는) 신령이므로 千秋에 제사가 끊이지 않았다. 나 洪德은 山東 사람으로 綿竹 知縣을 지냈다. 이전에 羅江縣 知縣 李德瀚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神祠에는 綠袍金臉이 있는데 殘賊 張憲忠의 像이다. 매번 일찍이 없애지 못한 것을 분하게 여긴다.……神堂의 對聯을 보면 賊의 姓名과 일치하는 글자가 있다. (어떤 이들은) 속여서 말하기를 이것은 文昌의 化身이라하니 어찌 이처럼 신령을 극히 모멸할 수 있는가!” 내가 上官[=綿州知州 杜蘭 : 필자]의 위임과 협력을 얻어 梓潼縣의 길을 살피면서 搜索하여 風洞樓에 이르러 綠袍金

지방지 가운데 咸豐『重修梓潼縣志』 권5, 藝文에 이 문장이 최초로 실렸으나 여기에는 작자가 王成彦(梓州知州, [乾隆] 己未 進士)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咸豐『重修梓潼縣志』의 選舉志에는 王成彦이라는 인물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同治『直隸綿州志』 권49에 실린 이 문장의 작자 역시 王成彦(梓州, [乾隆] 己未 進士)으로 되어 있으나 同治『直隸綿州志』의 選舉志에는 그 이름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民國『三台縣志』 권22에 실린 이 문장에는 작자가 王程焯(乾隆 己未 進士 潼川)으로 소개 되어 있고 같은 民國『三台縣志』 권19, 選舉志, 進士, 5앞에는 王程燄 乾隆元年 丙辰과 進士라고 소개되어 있다. 焯과 燄은 같은 글자이므로 동일인물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진사 학위를 취득한 연도에 다소 차이가 있다. 한편 光緒『新修潼川府志』 권15, 選舉志, 進士, 13앞에는 乾隆4年 己未科 進士 王程焯(三台人)이라 되어 있다. 王成彦은 발음이 똑같은 王程焯(三台縣 進士)을 잘못 쓴 것이다.

臉에 사납고 독살스러우며 잔인한 형상을 보니 神과 매우 달라 賊像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내가) 급히 本州[=綿州 : 필자] 知州인 杜蘭公에게 아뢰고 衙役들에게 그 像을 萬 토막으로 내도록 명령하여 賊의 大逆不道와 백성에게 해독을 끼친 죄를 처벌하였다. ……淫祀를 제거하고 神宇를 깨끗하게 했다.¹⁰³⁾

羅江縣 知縣 李德瀚은 건륭6년 장헌충 소상을 훼손하기 이전부터 그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일찍이 없애지 못한 분노를 綿竹縣 知縣 安洪德에게 표시한 것을 보면 太廟를 자신의 관할구역에 둔 梓潼縣 知縣에게도 이 점과 관련하여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다고 짐작된다. 나강현, 먼죽현, 재동현은 동일한 綿州直隸州 예하의 縣이므로 세 知縣들 간에 지방통치를 위한 의견교환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먼죽현에서 뿌리내린 邪教집단을 성공적으로 축출하고 그들이 사용하던 서적을 불태우고 처소를 書院으로 바꾼 경험이 있던 安洪德¹⁰⁴⁾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자 그는 즉각 上官인 綿州知州의 허락을 얻어 梓潼縣의 張憲忠 塑像을 훼손해버렸다. 그리고 이듬해인 乾隆7년(1742) 綿州知州로 승진하자「除毀賊像碑記」를 새긴 비석을 風洞樓에 세웠다.

그러면 직접 당사자인 梓潼縣 知縣은 왜 張憲忠 塑像의 훼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을까? 청초 이래 역대 梓潼縣 지현들이 자신의 관할구역 내에 張憲忠 塑像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 리는 없다. 그들 중에는 張憲忠 塑像의 존재를 알면서도 묵인한 자가 없지 않았을 것이다. 지현으로서는 굳이 자신의 임기 내에 張憲忠 塑像을 훼손함으로써 민심을 건드리고 소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除毀賊像碑記」의 “(어떤 이들은) 속여서 말하기를 이것[=張憲忠 塑像]은 文昌의 化身이라하니 어찌 이처럼 신령을 극히 모멸할 수 있는가!”라는 나강현 지현 李德瀚의 지적은 張憲忠 塑像을 文昌帝君의 神像이라고 둘러대며 보호하려는 세력이 있었다는 점을 암시한다. 그들은 근 백 년 동안이나 張憲忠 塑像을 지켜냈다. 매년 張憲忠 塑像에 매년 제

103) 安洪德, 「除毀賊像碑記」(『張憲忠在梓潼』), p.14.

104) 民國『綿竹縣志』 권5, 官師, 16뒤-17앞.

사를 거르지 않던 梓潼縣의 民草들, 그리고 替天行道의 具現者라는 張憲忠의 이미지를 만들고 이를 전설로 유포시킨 民草들이 바로 그들이 아니었을까?

V. 맺음말

본고는 『四川張獻忠傳説選』에 수록된 張憲忠 傳説 103편을 역사학적 관점에서 분석해 본 것이다. 張憲忠 傳説의 내용을 역사학 연구의 기초 자료인 문헌자료와 비교해 보면 ① 양자가 일치하는 것 ② 전설이 문헌자료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 ③ 전설이 문헌자료에는 없는 새로운 것 ④ 전설 내용이 문헌자료와는 상반된 것으로 유형화 할 수 있다. 이 유형들을 장헌충 전설의 주제와 연결시켜 볼 때 ① 유형에 속하는 전설로는 張憲忠 生涯 전설 가운데 사망 전설, 성장 전설의 일부, 戰鬪 전설 가운데 淸軍과 大順軍과의 전투 전설 그리고 明軍, 自衛集團과의 전투 전설 일부가 있다. ② 유형에 속하는 전설로는 戰鬪 전설 가운데 明軍, 自衛集團과의 전투 전설 일부, 懲惡 전설인 打富와 除惡 傳説 일부가 있다. ③ 유형에 속한 전설로는 張憲忠 生涯 전설 가운데 출생 전설, 성장 전설 일부, 由來전설인 節氣와 地名 傳説, 戰鬪 전설 가운데 明軍, 自衛集團과의 전투 전설 일부, 勸善 전설인 恩人報答, 住民保護 傳説, 懲惡 전설인 打富와 除惡 傳説 일부가 있다. ④ 유형에 속하는 전설로는 戰鬪 전설 중 自衛集團과의 전투 전설 일부가 있다. 수량으로 따지면 전체 전설 103편 가운데 약 70편 가량이 ②, ③, ④ 유형에 속한다.

이처럼 장헌충 전설은 명말청초의 사천사회와 장헌충에 대해 문헌 자료가 제공해주지 못하는 새로운 내용을 풍부하게 전해주고 있다. 하지만 문학 자료인 장헌충 전설을 역사학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사실성의 문제이

다. 전설들은 문헌자료에 기록되고 분명하게 역사적 사실로 입증된 내용들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도 있지만 民草들이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되 사실을 적당히 가공하여 이야기의 재미와 극적 요소를 강화시킨 것도 있다. 둘째는 세계관의 문제이다. 張獻忠傳說 속에서는 富者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거의 없다. 전설 속에 등장하는 부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가난한 자들을 압박하고 착취하는데 血眼이 된 존재로 그려진다. 그러다가 장헌충에게 죽임을 당하고 부정하게 모은 재물을 뺏기는데 민초들은 빼앗긴 재물을 장헌충을 통해 돌려받는다. 현실에서 존재하는 ‘착한’ 富者들의 존재는 외면한다. 지배층인 官僚나 紳士, 地主에 대한 시각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일방적인 시각은 전설을 재미있고 선명하게 전개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복잡다단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데는 장애가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장헌충 전설 자체는 명말 청초의 사천사회와 장헌충에 관한 중요한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장헌충 전설은 지역적으로 사천전체가 아니라 사천의 일부 지방 특히 서북부인 梓潼縣·西充縣에 집중적으로 유포되어 있다는 점이다. 太廟(大廟) 건설과 보수과정에서 張憲忠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은 梓潼縣에서는 그의 행적을 지지하면서, 張憲忠 死亡地인 西充縣에서는 抗清 투쟁에서 희생된 그를 기리면서 많은 전설을 만들고 유포시켰다. 반면 大西政權의 도움지였던 成都 주변의 사천 서부 일대에 유포된 전설은 극소수이다. 이 지역에서는 오히려 屠殺者 張憲忠을 筆誅하는 문헌기록을 주로 남겼다.

둘째, 張憲忠 전설은 장헌충 세력 대 反 장헌충 세력의 대결 구도라는 관점으로 명말청초 동란기의 사천사회를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 전설은 反 장헌충 세력의 중추인 明의 官僚와 軍隊는 부패했고, 地主와 紳士는 民草들의 삶을 고달프게 만든 惡한 무리라고 낙인을 찍고 있다. 이는 紳士層이 기록한 문헌자료에서 전하는 바, 장헌충 세력은 惡이고 反 장헌충 세력은 善이라는 가치판단을 民草들이 뒤집은 것이다.

셋째, 전설에서 만들어진 장헌충에 대한 개별적인 이미지들은 논리적으로 서로 연결되면서 替天行道의 구현자라는 종합적인 이미지를 만

들고 있다는 점이다. 전설에 나타난 개별적인 이미지들을 종합하면 張獻忠은 옥황대제가 파견한 使者로서 세상에서 하늘을 대신하여 懲惡揚善, 打富濟貧이라는 天命을 수행하는 替天行道의 구현자이다. 替天行道 과정에서 희생되는 자들은 평소 民草를 괴롭히던 惡人들이므로 그들을 죽이는 것은 정의로운 행위이다. 신사나 관료들이 장헌충을 비난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인 대규모 인명살해를 전설에서는 懲惡揚善, 打富濟貧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로 정당화한 것이다. 이리하여 장헌충은 지배층이 기록한 문헌자료에서 낙인찍힌 屠殺者의 이미지를 벗고 오히려 替天行道의 具現者로 부활하였다. 이런 관점은 도둑 무리가 群雄으로 활약하면서 ‘救困扶危’, ‘殺富濟貧’하여 替天行道 한다는 『水滸傳』의 계보를 이은 것이다. 하지만 장헌충이 수행한 天命(懲惡揚善, 打富濟貧)은 힘을 앞세우는 霸道的 속성이 강했고 그로 인해 大西政權이나 張憲忠은 秦帝國이나 項羽처럼 단명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장헌충을 지배자들이 屠殺者로 표현하든 民草들이 替天行道의 具現者로 표현하든 이것은 각각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싶거나 기억하고 싶은 것만을 토대로 재구성한 반쪽 이미지들에 불과하다. 필자는 역사연구자의 입장에서 당연히 문헌기록의 사실성을 더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문학적 허구인 전설도 세세한 내용면에서는 사실성이 떨어지지만 그 줄거리는 시대상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장헌충에게 屠殺者와 替天行道의 具現者라는 이중의 성격이 병존한다고 판단한다. 이런 야누스적 모습은 누구에게나 있다. 다만 장헌충에게는 두 측면이 각각 극단적으로 강조되다보니 양립하기 어려운 것처럼 비쳐질 따름이다.

(Abstract)

The characteristic of Sichuan society and the portrait of Zhangxianzhong in Sichuan legend

Lee, Jun Gab

In this study, I have analyzed the characteristic of Sichuan society and the portrait of Zhangxianzhong(張憲忠) in Sichuan legend, especially the latter.

Zhangxianzhong had been depicted as a slaughterer, evil man in Sichuan during Ming-Qing transition times. It was certain that Zhangxianzhong massacred Sichuan people at that time. Zhangxianzhong's such negative portrait was made by the gentries, the ruling class of Ming-Qing dynasties. They hated Zhangxianzhong very much because of he had killed them and plundered them of their property. So they exaggerated his faults and did not mention about his good conducts at all.

But Zhangxianzhong's portrait of Sichuan legend in Ming-Qing transition times was very different. He had been depicted as a righteous hero who killed evil landlords and carried out heavenly way. Moreover Sichuan people had built his holy statue and performed memorial service for him every year after his death. The service had been interrupted by local magistrate. Because he regarded Zhangxianzhong as a traitor to Qing dynasty.

The two portrait of Zhangxianzhong were so much different that

we can not choose but to be moderate. Zhangxianzhong is not only a slaughterer but also a righteous man like Janus.

주제어: 전설, 장헌충, 명말청초, 사천사회, 체천행도

關鍵詞: 傳說, 張憲忠, 明末清初, 四川社會, 替天行道

Keywords: legend, Zhangxianzhong, Ming-Qing transition, Sichuan Society, carry out the heavenly way

(원고접수: 2010년 11월 15일, 심사완료 및 심사결과 통보: 12월 15일, 수정원고 접수: 12월 22일, 게재 확정: 12월 27일)